

공작기계 및 산업 혁신 연구의 체계적 고찰과 시사점

곽기호, 김희태, 최진철, 오승훈

- ① 서론
- ② 조사 방법
- ③ 공작기계 기술·산업 혁신 연구
- ④ 결론 및 시사점

공작기계 및 산업 혁신 연구의 체계적 고찰과 시사점

곽기호, 김희태, 최진철, 오승훈

- ① 서론 / 1
- ② 조사 방법 / 2
- ③ 공작기계 기술·산업 혁신 연구 / 4
- ④ 결론 및 시사점 / 65

* 본 자료는 곽기호(부경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의 원고를 기반으로 작성함

기계기술정책 원문 찾아보기

- 한국기계연구원 홈페이지-새소식-기계기술정책
- 웹페이지 : https://www.kimm.re.kr/pr_policy

※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UMMARY

- 본고는 경영·혁신 연구 분야 SSCI 학술지에 게재된 공작기계기술·산업 연구를 SLR(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SLR 방법론은 연구 문제에 대한 문헌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편향적이지 않은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1990~2021년에 게재된 미국, 일본, 독일 등을 분석한 논문 26편을 요약·정리
- 논문 게재 시점을 기준으로 공작기계산업의 역사와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우리산업에 제언하고자 하는 시사점을 도출함
 - (1990년대) 미국, 독일, 일본 등 공작기계산업을 선도한 국가를 분석함
 - 일본이 공작기계산업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과정, 산업 내 지식재산권과 생산성·매출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됨
 - (2000년대) 미국·독일 공작기계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R&D 집약, 특허)과 CNC 관련 주요국의 혁신 및 기술 추격 실패 사례를 분석함
 - 일본·대만의 기술혁신 과정을 아키텍처 이론으로 분석하고, 미국 공작기계 산업의 쇠퇴와 영국의 혁신 확산 등을 분석함
 - (2010년대) 중국의 성장, 일본의 전략적 혁신과 기술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스페인의 상호이익을 위한 경쟁기업 간 혁신 사례를 분석함
 - 공작기계·CNC를 대표하는 일본 사례를 탐험, 활용역량의 관점과 기술 진화로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기술역량을 확보한 중국 사례를 분석함
 - (2020년대) 기술 융합, 기회의 창, 탄력성, 네트워크 분석, 산업성숙도 모델 등 다양한 경영·혁신 이론을 공작기계산업에 적용함
 - 유럽 내 중소기업에 특화된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기술 융합을 해석하는 등 공작기계산업의 발전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각화됨
- 공작기계기술·산업 분야 혁신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활동의 효과성을 높여 우리 기계산업의 강건성을 제고할 수 있음

1. 서론

- 본고는 혁신연구 분야 SSCI 학술지에 게재된 공작기계기술·산업 연구를 SLR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방법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결과를 공작기계산업 종사자의 산업 및 혁신에 대한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정부 정책 개발의 질적 제고 및 국가 어젠다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음
- 기계기술·산업의 혁신 연구는 매년 꾸준히 논문이 게재되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 공작기계 분야는 타 업종 대비 많은 선행연구가 있음
 - SLR 방법론을 토대로 SSCI 논문을 조사한 결과, 1990년 이후 기계산업 혁신 관련 논문이 연평균 1.4편 발간되며 학술적으로 꾸준히 진행됨
 - * 산업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론으로 2장 조사 방법에서 상세히 설명함
 - 1990~2022년에 총 46편 게재되었으며, 2001년에 5편 발간된 이후 2020년에 다시 5편 발간되며 최근 학술적 관심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특히,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Mother Machine)라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받으며 타 업종 대비 많은 편수의 논문이 게재됨
 - 건설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등 타 업종은 공작기계를 활용하여 생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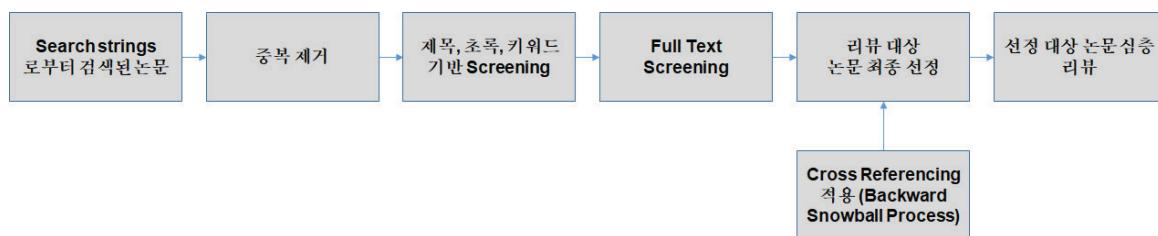
<표 1> 업종별 기계기술·산업 혁신 연구 논문 게재 현황

업종	편수	업종	편수
공작기계	26	광산기계	1
기계산업 전반	8	가스터빈	1
반디장비	3	섬유기계	1
건설기계	3	의료기기 및 관련 연구 장비	1
플랜트	2	기타 (농기계, 금형, 베어링, 압축기 각각)	1

-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공작기계산업의 중요성을 확인하였기에 논문 고찰을 통해 산업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SSIC 논문 고찰을 통해 공작기계를 주로 연구한 국가·기관 등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여, 과거와 현재의 산업혁신 동향을 파악하고자 함
 - 기술분석 결과 공작기계 이외 타 업종은 공작기계산업보다 혁신 관련 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선행 연구가 풍부한 공작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2. 조사 방법

- 혁신연구 분야 학술지에 게재된 기계기술·산업 연구의 체계적 고찰(SLR)과 시사점 도출을 통해 기계기술 정책 수립 고도화 방안 모색
- 선정한 논문에 대한 분석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서론), 연구 문제와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론과 자료, 연구 결과, 연구의 시사점 순으로 정리함



<그림 1>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Process

- SLR 방법론은 연구 문제에 대한 문헌을 포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편향적이지 않은 양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 SLR(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의 절차는 ①검색어를 지정하여 제목 기반의 관련 문헌 검색, ②중복 제거, ③제목 및 초록 기반 스크리닝, ④전체 내용 기반 스크리닝, ⑤각 문헌의 참고문헌에서 유의미한 문헌 추가 발굴, ⑥선정 논문 심층 고찰
 - 관련된 연구를 모두 분석한다는 점에서(안은진·강현, 2018), 연구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시 외에도 양적 연구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적인 문헌 리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Liberati et al., 2009; White and Schmidt, 2005)
 - 분야 및 성숙도(성숙, 부상)와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안은진·강현, 2018; 장미화·탁진국, 2019; 조윤성·홍아정, 2019; Suppatvech et al., 2019)
 - 연구의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SSCI 저널 중 영문 논문만 선정하고, SLR의 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2022년에 발간·게재 승인된 논문만 분석함
 - * Research Policy, Technov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R&D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Studies 등 주요 저널 확인
- 문헌 발굴을 위한 검색어는 기계기술·산업과 혁신·경영 관련 키워드 조합
 - (기계기술·산업) 전반적인 기계산업과 세부산업에 대한 연구를 포괄하기 위해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업종명을 활용함
 - * 광범위한 응용 분야를 갖는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과 적층제조(3D Printing, Additive Manufacturing)는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제외

- (혁신·경영)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세부 이슈는 제외하고, 기계기술·산업 전반의 혁신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헌 발굴
 - 정책 연구를 위해 심층 분석 단계에서 기계산업 맥락, 기고문, 이론 검토, 연구 방법,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질적 평가 기준 적용
 - 또한, 기계기술·산업에 대한 SLR 방법의 적용은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한 논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질적 실증 연구로 한정
- 연구결과를 공작기계산업 종사자의 산업 및 혁신에 대한 학습자료로 활용하고, 정부 정책 개발의 질적 제고 및 국가 어젠다 발굴에 활용할 수 있음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선행연구를 정리함으로써, 공작기계산업의 혁신 동향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음

<표 2> 기계기술·산업 및 혁신 연구 문헌 발굴을 위한 검색어

구분	기타	기계산업 (Or)	혁신, 경영 (Or)
기계산업 총괄		Machinery Industry	
세부산업			
KSIC 2911	플랜트	internal combustion, turbine	Innovation
KSIC 2912		fluid power equipment	
KSIC 2913	플랜트	pump, compressor, valve	
KSIC 2914		bearing, gear	
KSIC 2915		industrial ovens, furnaces, burners	
KSIC 2916		work trucks, lifting, handling equipment	
KSIC 2917	플랜트	refrigerating, air conditioning, filtering, distilling equipment	And
KSIC 2921		agricultural, forestry equipment	
KSIC 2922		metal forming, machine tools	
KSIC 2923		metal casting	
KSIC 2924		construction equipment	
KSIC 2925		food, beverage, tobacco processing	
KSIC 2926		textile equipment	
KSIC 2927		semiconductor, display equipment	Management

3. 공작기계 기술·산업 혁신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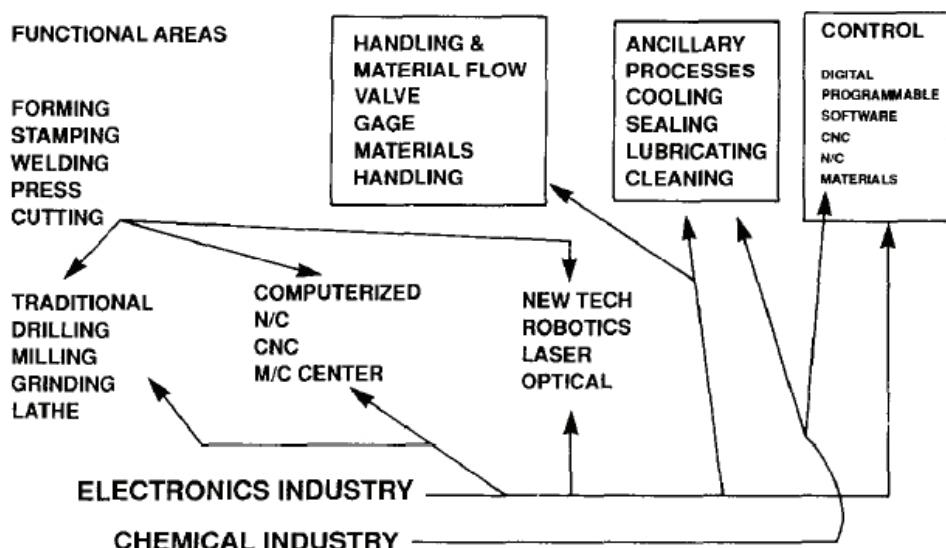
- 1 Chakrabarti, A.K., 1990.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n analysis of the chemical, textiles and machine tool industries in the U.S. Res. Policy 19, 257~269.

□ 개요

-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1967~1983년 혁신 활동(논문 출판)과 생산성(노동 시간당 생산량) 증가 간 관계 분석 결과, 혁신 활동 증가에도 불가하고 생산성 감소
 - 특히 소기업은 특수목적 제품을 노동집약적으로 생산하여, 생산성에 부정적
- 공작기계 수요의 주기적 변동이 생산성 감소를 촉진하며,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해 높은 임금이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확인함

□ 연구 맥락: 공작기계 혁신에 대한 이해

- 기능 영역(Forming, Stamping, Welding, Pressing, Cutting)이 발생하며, CNC, 로보틱스, 레이저, 광학기술 발전, 관련 소재 Handling and Flow 기술에 주목
 - 전자산업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발달



<그림 2> 공작기계 혁신에 대한 이해

□ 주요 연구결과

-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혁신 활동은 Forming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 1960년대와 비교했을 때 1980년대 혁신은 거의 두 배가 됨

<표 3>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혁신 활동(1967~1982년)

기능별 종류	연간 혁신의 수		
	1967~1973년	1974~1979년	1980~1982년
Cutting	64.95	65.66	152.25
Forming	76.57	37.00	44.00
Stamping	18.14	17.00	23.50
Welding	6.00	9.50	16.25
Press	3.71	5.00	3.25
기능성 기계 합	169.37	134.16	239.25
기타(그 외의 기계)	88.85	248.33	356.75
총합	258.22	382.49	596.00

- 1970년대 시작된 CNC 혁신, 1980년대 컴퓨터화된 절삭공구에서 NC 혁신을 대체: 제어기술, 소프트웨어 혁신에 대한 막대한 파급효과
- 가공기술 혁신에 따라 윤활유, 세정, 냉각, Sealing 등의 보완 기술(Ancillary Process)의 동반 성장 확인
- 혁신 활동의 증가에도 공작기계산업은 1973년 이후 생산성이 마이너스 성장
 - (1967-1972) 2.39%, (1973-1979) -0.33%, (1980-1983) -2.26%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공작기계산업은 앞서 살펴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제품 차별화(새로운 기능 부가)를 시도하였으나, 일본 및 독일 대비 경쟁우위 확보에는 실패
 - 제어기술 혁신이 신규 시장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존 장비에 부착·활용 하는 형태로 CNC 수요가 발생하면서 신시장 창출에 한계

- 공작기계 시장 수요의 주기성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반영한 고용 전략이 필요
 - 미국 공작기계산업은 다수의 소기업이 지배하는 산업으로 특수목적용 기계를 노동집약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에는 부정적
- 1980년대의 높은 달러 가치가 미국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침
-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대학과 기업은 미래 기술 기회 창출을 위해 기초연구에 매진해야 함

2

Vitali, G., 1990.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ade of machine tools during the eighties: a shift-share analysis. Technovation 10, 507~519.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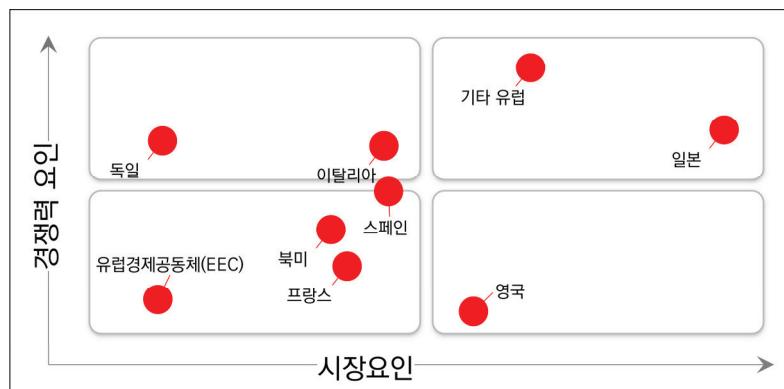
- Shift-share analysis(변이 할당분석)라는 무역경쟁력 분해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미국, 일본, 유럽 공작기계산업의 수출 성과 분석
 - 수출 성과를 세계 시장 요인, 특정 시장 요인, 고유 경쟁력 요인으로 분해
 - * 곽기호, 오승훈, 김원준(2012) 및 Cheptea et al.(2014)의 CMS 분석 참고
 - 1981~1987년 공작기계산업 교역 자료 활용, 수출 유형을 OECD 국가 대상과 Non-OECD 국가 대상으로 분류
- 일본은 특정 시장 요인과 고유 경쟁력 요인 모두에서 성과가 두드러지지만, 이탈리아와 독일(이상 유럽)은 고유 경쟁력 요인에서 수출 증가 원인 확인

□ 연구 맥락: 1980년대 CNC 기술 발전에 따른 공작기계산업의 중요성 부각

□ 주요 연구결과

- 1980년대 초중반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회복 확인
 - 회복 요인: 달러 가치 하락(엔화, 마르크화 대비), 대만·일본을 상대로 한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VRA), 공작기계산업 수출에 대한 정부 지원, 국방 산업에서의 중요성 인지, 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 일본 공작기계산업의 경쟁우위로 대기업, 높은 수준의 R&D 투자, 기술혁신의 빠른 확산, 산업 가치사슬의 수직적 통합 등에 따른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꼽음
 - 이에 따라 일본 공작기계산업은 CNC를 효과적으로 채택하여 빠르게 성장
- 반면, 유럽은 시장 성장률이 정체된 선진국 시장에 집중, 작은 기업 규모로 인한 문제에 직면함



<그림 3> 공작기계 수출경쟁력 분석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1980년대에 CNC 도입·확산으로 공작기계 혁신에 관한 관심이 매우 증가
- 1980년대에 이미 대만 공작기계산업은 미국의 경제에 직면(VRA 적용)

3 Davies, H., 1993. The information content of technology transfers: a transactions cost analysis of the machine tool industry. Technovation 13, 93~100.

□ 개요

- 미국, 일본, 독일 공작기계산업의 혁신 관련 내부화하는 기술과 라이센싱하는 기술 간 보유 정보 특성의 차이를 확인
 - 상업적 가치가 있는 지식 소유 시, 이를 (1) 기업 내부적으로 소유할지, (2) 라이센싱 등의 형태로 타기관에 이전할지 전략적 의사결정 필요
- 설문으로 204건의 기술이전(in/out-wards) 및 내부화 관련 자료를 수집·연구

□ 주요 연구결과 (연구가설별)

- (가설 1) '핵심기술일수록 내부화할 것'이라는 가설은 내부화 기술이 다소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가설 2) '복잡한 기술일수록 내부화할 것'이라는 가설은 라이센스 기술과 내부화 기술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
 - 기술이전 수혜자는 유의 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기술 제공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없음
- (가설 3) '문서화하기 쉬운 기술일수록 라이센싱할 것'이라는 가설은 문서화가 쉽고 꾸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라이센싱이 현저히 많음
- (가설 4) '다양한 팀이 개발에 참여한 기술일수록 내부화할 것'이라는 가설은 3개 이상 분야를 융합한 기술일수록 높은 내부화 경향 확인(통계적으로 유의)
- (가설 5) '기술의 암묵적 특성이 강할수록 내부화할 것'이라는 가설은 특허가 라이센싱 형태로 더 많이 이전되며, 인력·장비에 내재된 기술 정보는 이전이 어렵고, 내부화 경향도 강함
- (가설 6) '라이센싱 기술은 형식지의 패키징 강도가 약하다(종합패키지는 이전이 어렵다)'는 가설에 대해 통계적 유의한 차이 미확인
 - 라이센싱 기술은 한정형(limited) 중심, 내부화 기술은 종합형 중심
 - 패키징 대상: 특허, 디자인, 기술 사양, 도면, 인력 파견, 제품 예시, 생산장비 등
- (가설 7) '완제품 관련 기술 거래는 CNC, 부품, 공정 등에 비해 라이센싱이 유리하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확인
 - 부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보다 완성된 기계의 성능평가가 용이함
 - 부분 기술은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내부화가 유리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공작기계 기술이 가지는 정보 특성에 따른 라이센싱과 내부화 경향이 구분됨
- 라이센싱은 엔지니어링 지식, 완제품, 특허, 형식지가 더 효과적 →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특허 패키지의 중요성 재확인

4

Ernst, H., 1995. Patenting strategies in the German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and their relationship to company performance. *Technovation* 15, 225~240.

□ 개요

- 독일 공작기계산업 내 50개 기업의 특허 활동의 유형과 경제적 성과 간 상관관계 분석
 - 클러스터 분석 기반 4가지 유형 확인: ①선택적 특허 출원, ②성공적이지 못한 특허 출원, ③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출원, ④유효 특허 중심 출원
 - * 6대 특허 지표 기준 50개 기업을 4개 클러스터로 구분
 - 특허를 활발히 하는 기업(국제출원, 유효 특허 비율, 피인용 특허)이 경제적 성과가 우수함
- 특허를 빌명 활동의 지표로 사용, 당시 부족했던 특허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함

□ 연구 맥락

- 독일 기계산업은 독일 전체 특허 활동의 25%를 차지함
- 독일 기계산업 중에서도 특정 기업의 특허 행위가 타 기업의 특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에서 공작기계산업 선택
 - 산업 선정의 3가지 조건: ① 기술이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② 특허 행위에서 국가 간 차이 발생, ③ 특정 기업의 특허 행위가 타 기업의 특허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 주요 연구결과

- 3대 경제적 성과 지표(상대적 매출성장률(성장성), 종업원 1인당 상대적 매출(수익성), 종업원 1인당 상대적 매출성장률(혁신성))를 활용함
- ③, ④번 클러스터(Group 2)가 ①, ②번 클러스터(Group 1)보다 성과 우위 확인

6대 특허 지표**① 전반적인 국가 특허 출원 수준**

- 평균 특허 활동 대비 비교 우위: 독일 자국 내 특허
- 종업원 1인당 특허 출원 수

② 특허 등록/출원 비율

- 출원 특허 대비 등록 특허 비중으로 측정

③ 유효 특허: 등록 후 등록비를 계속 납부하는 특허

- 경제적 가치가 유지비용보다 크기에 등록 유지(특허의 경제적 중요성)
- 전체 등록 특허 대비 등록비 납부 특허 중으로 측정

④ 유럽특허청 특허 출원**⑤ 특허 피인용****⑥ 특정 IPC 4단위(subclass) 특허 집중도: 엔트로피 지수 평균이 낮을수록 소수의 4단위에 집중됨****□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특허 성과와 경제적 성과 간 양의 상관관계 확인하였으며, 특허**

- 특허 특정 4단위에 집중된 ③번 클러스터 강조
- 선택적 특허 출원(①번 클러스터)에서는 유의미한 성과 확인이 어려움

○ 특허 지표와 경제적 성과 지표 간 매칭 확인

- 유효 특허(지표 ③): 상대적 매출성장률에 긍정적 영향(특허 보호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
- 유럽특허청 특허 출원(지표 ④): 3가지 경제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 영향
- 특허 피인용(지표 ⑤): 상대적 매출성장률 및 종업원 1인당 상대적 매출성장률 (혁신성 지표)에 긍정적 영향

5

Kotha, S., Nair, A., 1995. Strategy and environment as determinants of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Japanese machine tool industry. Strateg. Manag. J. 16, 497~518.

□ 개요**○ 일본 공작기계산업을 대상으로 1979~1992년 사이 25개 일본공작기계 기업 데이터 활용 환경과 전략이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 미국 기업 중심, 횡단면 연구, '전략'만을 기업 성과의 선행 변수로 고려한 기존 연구 한계 극복

□ 연구 맥락

- 당시 일본 공작기계산업은 일본 기업의 역량을 대표할만한 사례로 주목
- 공작기계산업의 시장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선진국 제조업 성장의 핵심
- 특히, CNC 기술의 등장으로 기술적 환경 변화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에 적절함

□ 주요 연구결과

- 전략 변수보다는 환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성장, 우수한 금융자원 조달 환경, 정부의 공작기계산업 환경 규제 등이 일본 공작기계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
 - 결국, 성과 창출 제고를 위해 환경·전략 변수 모두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함

전략 변수 4가지

- (1) 비용 효율성: 매출원가/매출(가설 6, 긍정적)
- (2) 자본 집약도와 자본 지출(가설 7, 수익성에는 부정적, 매출 성장에는 긍정적)
 - 자본 집약도 및 자본지출의 증가는 설비의 현대화를 의미함
 - 그러나 산업체는 고객 맞춤형 제품 특성과 그에 따른 특정 제품 세그먼트가 소규모인 특성으로 인해 수익성 제고에는 부정적
- (3) 차별화: 매출액 대비 광고비(가설 8, 부정적)
 - 산업체는 직판이 효과적(광고 필요성 낮음)이며, 협상 기반의 거래를 함
 - 광고의 역할은 제품에 대한 인지도 및 평판 제고
- (4) 규모와 범위: 수출 비중 및 시장 점유율(가설 9, 긍정적)

환경 변수 5가지

- (1) 자원이용도: GNP 변화량, 전방산업 성장 관점에서 이해(가설 1, 긍정적)
- (2) 산업집중도: HH 지수, 상위 4개 기업 (가설 2, 부정적)
- 1960년대 일본 공작기계산업은 소규모 기족기업이었으나, 이후 경제산업성 주도로 기업 간 합병, 제품 표준화, 생산라인 축소를 통해 산업집중도 증가
 - 공작기계 기업의 가격 결정권 확대 → 수익성 강화
- (3) 기술 변화: 연도별 CNC 공작기계 생산 비율(가설 3, 부정적)
- 새롭고 복잡한 지식의 습득 요구, 기업 간 경쟁 심화, R&D 투자 및 경쟁 확대
 - 대규모의 새로운 자산 투자 요구, 시장 철수 장벽이 높아 기업의 어려움 심화
- (4) 자율규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적용 여부(가설 4, 부정적)
- (VRA) 당시 일본은 저가~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미국 시장 침투
 - * 미국의 판매량 제한 요구: 시장 점유율 기준 17.5% 미만만 확보 가능, 일본의 동의(1986년)
 - : 수출량 감소, 새로운 해외 시장 탐색 및 프로모션 비용 증가, 자국 내 경쟁 증가
- (5) 경쟁적 상호의존성: 수입제품의 시장 침투 정도(가설 5, 부정적)
- 수입의 증가는 해외 경쟁자와 국내 수요기업간 상호의존성 심화를 의미하며, 해외 공급사와 국내 수요기업간 상호의존성 심화는 일본기업 성과에 부정적
 -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0, 낮을수록 1에 가까움

○ 종속변수는 영업이익률, 매출액 변화량 등 2개의 경제적 지표를 활용함

<표 4> Kotha, S., Nair, A., 1995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결과	설명
1	지지	
2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수시장 내 경쟁 심화, 공작기계 기업의 가격 결정 권한에 한계 ▪ MT 시장의 세분화된 특성 반영
3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NC 기술은 경쟁력 파괴 혁신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과 일본공작기계협회의 전략적 대응에 힘입어 이를 극복 ▪ 일본기업, semi-formally organized trans-industrial networks 전략적 활용
4	부분적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각 ▪ VRA 규제에 대응해서 미국에 공장 증설(일본 입장에서 Offshore) ▪ 동아시아 및 유럽국가로의 수출 증가
5	부분적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각
6	부분적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기각
7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성 증대 활동을 통해 자산 투자를 위한 자본 지출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가설	결과	설명
8	부분적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기각 ▪ 오히려 광고비 지출 증대 확인 ▪ CNC 시대 리딩을 위한 경쟁 심화 ▪ 수출 비중 확대: 전시회 참가 확대 ▪ MT 모델, 옵션 종류 증가 ▪ 기술변화기 광고를 통해 경쟁자 대비 기업·제품 인지도 제고 수단
9	부분적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의 매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기각 ▪ VRA규제 대응을 위한 미국 공장 증설 효과 ▪ 시장점유율의 수익성/매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영향 기각 ▪ 세분화된 시장 Segment 특성 반영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일본 공작기계산업의 성장에서 정부의 정책과 전방산업의 성장(환경 변수 관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6 Lee, K.R., 1996. The role of user firms in the innovation of machine tools: The Japanese case. Res. Policy 25, 491~507.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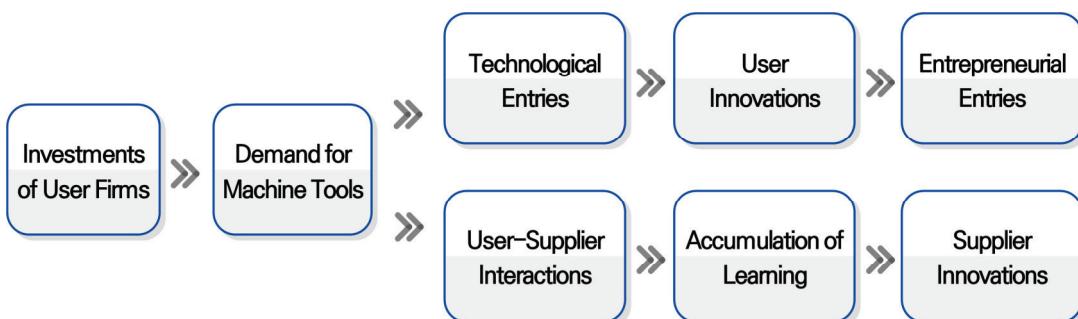
- 한국인 학자가 일본 공작기계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사용자인 수요기업이 공작기계 혁신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침을 실증함
 - (투자 관점) 사용자는 공작기계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
 - (기술혁신 관점) 공작기계 개발과 상용화에 직접 개입
 - (기업가적 활동 관점) 수요산업이 공작기계산업에 신규 진입: 1950년대 중반의 자동차산업, 1970년대의 전자산업

□ 연구맥락

- 1990년대 중반 일본 공작기계산업은 기술·시장 경쟁력 모두 미국과 유럽을 앞선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의 공작기계산업 성장을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이해

□ 주요 연구결과

- 공작기계 수요기업의 투자가 로컬 공작기계기업의 시장 창출과 혁신에 기여함
 - 수요기업의 설비투자는 로컬 공작기계 기업의 시장 창출→‘최소 임계규모’, ‘임계 질량’→규모의 경제, 전문화의 경제(Economies of specialization) 달성
 - 사용기업이 투자해 얻은 정보로 공작기계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제공→공작기계 기업은 사용기업의 니즈 충족→공급자와 사용자 간 상호학습 촉진
- 공작기계 수요기업은 기술혁신 활동의 일환으로 스스로 생산장비를 보수, 개선하고 자체 개발함
 - ① 경제적 이익 전유
 - ② 사용기업이 맞닥뜨린 문제를 공급기업이 해결해줄 수 없을 때,
 - ③ 공급기업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수주를 위해 기술경쟁력 과장)
 - ④ 주로 아직 정통한 공급기업이 없는 제품·시장·지역에서의 직접 사업화 목적
 - 수요기업은 다학제적 접근 경향이 강해서 자기 기술 역량 축적함
 - 개도국에서는 오히려 수요기업이 공작기계기업보다 학습의 주요 행위자, 선도자 역할을 함
- 공작기계 수요기업은 수직적 통합과 독립기업 설립 등을 통해 직접 사업화하는 형태로 기업가적인 역할을 수행함
 - 위험 요인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충분한 시장 수요가 필요



<그림 4> 수요기업의 공작기계 혁신에서의 역할

- 실제로 일본 수요 제조기업의 공작기계 사업으로 Toyoda Koki(JTEKT의 전신), 스미토모전기공업, 혼다자동차, 도시바, 도시바기계, 고마츠, 히타치(닛산 向), 미쓰비시중공업, 마쓰다자동차 등을 언급
 - (표 3) 요시다공업(YKK, 금속가공), 세이코 세이키(시계), Shikishima Tipton (섬유), 고베 제강(철강) 등 추가
 - * (표 3) 최소 3개 이상의 미국 MT 특허를 보유한 79개 일본 기업 중 43개가 사용자 기업
 - * (표 4) 광범위한 수요 산업(하지만 자동차, 전자산업 중심), 상대적 비중 증가
 - 수요 제조기업의 공작기계 사업 영위는 공작기계 비즈니스의 위험 감수 성향, 혁신활동 배가, 계열사와의 협력, 단기 실적 창출 압박 등에서 벗어나게 함
 - 특히 전자산업 수요기업의 공작기계 사업 진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CNC 혁신 촉진(대표 사례: 후지츠의 화낙)
 - 자동차산업 수요기업의 공작기계 사업 진출은 산업용로봇, FMS 발전에 영향
- 일본은 무역회사도 공작기계산업에 진출: 무역업을 통해 축적한 지식을 활용 (미쓰이, 미쓰비시&이토 등)
 - 중소 공작기계기업의 수출 대행업체로서, 사용자처럼 행동: 해외 유통 채널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지식 획득(도쿄일렉트론(TEL))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수요기업(사용자)의 투자를 통해 공작기계산업의 혁신 기반이 조성됨
 - 수요산업의 자본 투자 후 약 4년 뒤에 MT 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특히, 일본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본 투자 효과가 가장 큼
- 수요기업(사용자)의 공작기계 사업 진입은 일본 산업 성장의 발판이 됨
- 수요기업(사용자)은 활발한 특허활동을 바탕으로 공작기계산업에서 사용자 혁신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함
- 한국은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진입 시도가 있었고, 삼성은 1990년대 말 신성장동력으로 CNC를 선택하기도 하였으나 실패에 그침
 - 실제 추진 강도, 기존 기계기술 기반 지식 역량 정도 등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비교 가능할 것으로 기대

7

Mazzoleni, R., 1997. Learning and path-dependence in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comparative evidence on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s. *Research Policy* 26, 405~428.

□ 개요

- 미국과 일본 사이 공작기계산업 주도권이 뒤바뀐 1980년대, 양국 NC 공작기계 혁신에서의 차이점 고찰
- NC 기술에 대한 양국 산업의 인식 차이가 기업 전략, 사용자 채택 행위, 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함

□ 연구맥락

- 생산량은 1972년, 매출 규모는 1978년부터 일본 공작기계산업이 미국을 추월
- 그러나, 1979년 기준 일본 공작기계의 평균 가격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침

폐루프(Closed-Loop)와 개루프(Open-Loop)의 차이

- (폐루프) 제어 유닛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제어 유닛에 정보를 피드백하며 피드백에 의해 가공오차를 탐지하고 제어 유닛이 서보모터에 신호를 보내서 가공정밀도를 보완함
- (개루프) 제어 유닛으로부터 피드백이 없고, 액추에이터 시스템 정밀도에 의해 가공 정밀도가 결정됨

□ 주요 연구결과

1) 미국

- NC 공작기계는 항공기 제조업에서 먼저 적용, 복잡한 부품의 정밀가공 자동화에 주력하였으며(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고수익 전략 추구), 1952년 폐루프 기술이 지배적 디자인(업계 표준)으로 채택
 - MIT Servomechanisms 연구실의 NC 공작기계 개발, 정밀도 관점에서 상당히 높은 요구 조건: 폐루프 채택
 - * 개루프는 당시 이용할 수 있는 서브모터의 한계로 인해 기술 진보 난관에 봉착

- 파슨스, 록히드 마틴, 미국 공군이 NC 공작기계 개발 지원, 다만 공급사 역할을 하는 공작기계 기업은 참여가 매우 제한적
- 항공기 제조만큼 복잡한 설계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미국 내 제조기업은 NC 공작기계 도입에 있어 문화적 장벽을 가지게 되었으며, 엔지니어 역량 개발 및 고용, 작업 프로세스 재조직 등의 어려움에 직면
 - 이런 경향은 미국에서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으며, NC 공작기계의 여러 기대효과 중 가공정밀도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공공정의 유연성 확보라는 기대효과는 사장됨
- 미국 공작기계 업체도 NC 기술 혁신에 대한 역량 부족, 소극적 대응, 신시장 발굴 노력 미흡
 - NC 기술 혁신을 미국 전자기업이 주도, 공작기계 제조사는 제한적인 역할
- 1970년대 미국의 저가 NC 공작기계 세그먼트가 형성되었으나 개루프와 폐루프의 가격 격차가 크지 않아 미국 기업은 여전히 폐루프 중심의 시장 개발
 - 그러나 폐루프가 더 비싸므로, 저가 세그먼트에서 부분적인 성공 달성

2) 일본

- 기술적으로 단순한 개루프에 주력, 저가 공작기계 시장 창출 및 유연한 제조공정 자동화에 주력
 - NC 도입 당시 일본 공작기계산업은 미국과 달리 저가형 생산에 전문화
- 계열 시스템하에 전자·공작기계 기술 모두를 보유한 기업들이 기술혁신의 통합과 조정하에 개발 전개
- 1960년대 중반, 모터기술의 성숙으로 개루프 기술의 상업적 응용이 가능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지배적 디자인을 확보한 기업·국가가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보완 기술의 혁신, 새로운 틈새시장의 등장은 지배적 디자인의 쇠퇴를 촉발함

- 지배적 디자인의 경로 의존적 특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생산자 간 긴밀한 상호작용이 필요
- 후발주자의 관점에서 틈새시장 공략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와해적 혁신 관점에서 개루프 기술의 중요성을 이해
 - 이후 화낙은 '70년대 중후반, 개루프에서 폐루프로 변경하였는데, 개루프에서 축적한 역량을 폐루프에도 활용(Kodama & Shibata, 2014)
- 공작기계는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기 때문에 미국은 초기부터 NC 기술의 폭넓은 적용을 고민했어야 함

8 Ehrnberg, E., Jacobsson, S., 1997. Indicators of discontinuous technological change: an exploratory study of two discontinuities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R&D Manag. 27, 107~126.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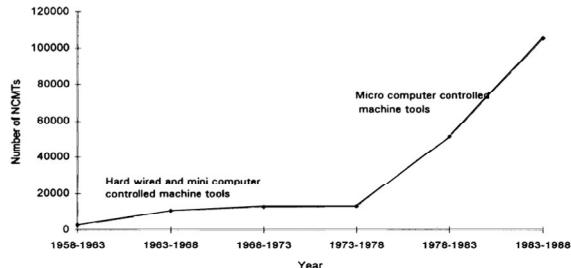
- 공작기계산업에서 일어난 두 가지 불연속적 기술 변화를 설명하는 위험 신호(warning signal)에 대해 분석함
 - (전통적인 NC→CNC) 상대가격(가성비), 신규 진입자 등이 선행지표로 활용
 - (CNC→FMS) 신규 진입, 논문 출판 등이 선행지표로 활용
- 불연속적 기술 변화라는 위험 신호에 다양한 지표가 사용될 수 있음

□ 주요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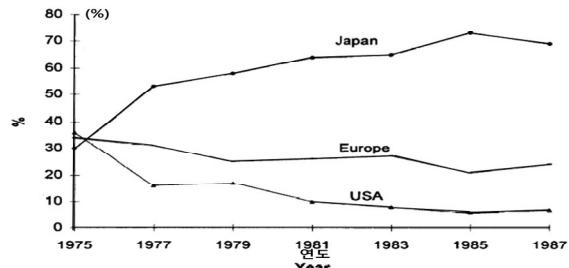
1) 전통적인 NC→CNC

- Mazzoleni(1997)와 같이 항공기 제조 수요 중심의 NC 공작기계는 낮은 유연성으로 인해 크게 확산되지 못함
- Soft-wired라 불리는 마이크로프로세서유닛(MPU) 채택 이후 유연성 확보, 대중 소비자용 대량 생산품의 개발이 가능해짐

- 1970년대 중반 이후 CNC 시대가 도래하였으며, 미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 그러나, 시장 점유율은 일본기업이 주도하며 미국과 유럽이 몰락



<그림 5> 미국 NC 및 CNC 공작기계 판매 변화량



<그림 6> CNC선반 부문 미국, 유럽, 일본 점유율 변화

- 가성비와 신규 진입자 수가 불연속적 기술 변화를 선행
 - MPU 채택 후 빠른 가성비 확보(사전 감지) → 매스 시장(Mass market) 창출

2) CNC→FMS

- FMS는 CNC 공작기계로 구성, (반)자동화된 생산시스템이며 통합 PLC로 제어
 - FMS 구성 공작기계 수는 최대 20대
- 1965년 최초 사업화, 1970년 8대 판매에 불과했으나, 1988년 1,000대까지 판매
- 1988년 이후 수요가 폭증함
 - 가격에 민감한 소기업에 적합한 FMS 개발
 - PLC 대신 개인용 컴퓨터(PC)를 시스템 제어에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격 경쟁력,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
 -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과 공작물을 동일 핸들링 시스템으로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단품종 소량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강점 제공
- 아래 그림과 같이 신규 진입자 수와 논문 출판이 불연속적 기술적 변화를 선행
 -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많은 공작기계 기업이 FMS의 잠재력을 믿고 시장에 진입: 시장 확산보다 10년 선행
 - 신규 진입자 확인 후, 논문 수가 급격히 증가: 26개('82) → 933개('87)
 - * 시장 확산보다 5년 선행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기술적 불연속성의 시장 반영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를 분석함
 - 신규 진입기업의 수가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확인
 - MPU 개발에 따른 가성비 확보, FMS 출판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시장 형성을 선행 → 기술개발이 Market-pull에 의한 것이라는 '슈무클러 패턴' 반박
- CNC와 FMS의 불연속적 기술 변화 지표의 차이(가성비와 논문 출판)는 혁신의 원천이 내부냐 외부냐에 따라 결정됨
 - CNC처럼 혁신 원천이 외부이면, 특허나 출판 등의 지표를 고려하기는 어려움

9

Vonortas, N.S., Xue, L., 1997. Process innovation in small firms: Case studies on CNC machine tools. Technovation 17, 427~438.

□ 개요

-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미국 중소기업 6곳의 공정혁신에 대해 실태조사함
 - (원인) 장기 거래 관계를 맺은 요구사항이 많은 고객(sophisticated customer)의 압력: 공정혁신에서도 시장 수요 반영의 중요성 확인
-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촉진하려면 정부는 시장의 유인효과를 고려해야 함

□ 연구맥락

- 제조업체의 공정혁신을 CIM 도입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중 CNC 공작기계 도입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함
 - CIM: CAD, CAM, CNC MT, 산업용 로봇, 자재 취급 장치 등 제조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서 컴퓨터를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달성
- CIM 도입은 1980년대 초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
- 그러나, 중소기업의 CIM 도입은 지식·자원·역량 부족으로 미미하였으며, 그로 인해 당시 CIM 기술 도입은 대기업 대상 실증연구 중심으로 이뤄짐

□ 주요 연구결과

- 사례연구 기업의 CNC 공작기계 구매 요인은 특수·일반목적으로 구분되며, 고객만족은 공통의 목적으로 함
 - (특수목적) 주요 고객이 작업 시 새로운 CNC 장비가 있어야 함(customer pull)
 - (일반목적) 가공용량·능력의 확장, 생산비 절감, 제품 품질 향상, 납기 단축 역량 확보를 통한 새로운 고객 확보(customer pull)
- 고객사와 장기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공정혁신의 중요한 원인임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중소기업의 공정혁신을 위해 정부의 대형 고객 육성 지원이라는 대안 제시함
 - 규제 부담 경감, 금융 인센티브, 우대금리 제공
 - 기존 정책들은 소규모 제조기업의 기술 역량 향상에 주목
 - 소규모 기업들의 새로운 공정혁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의 '수요 견인'과 '기술 주도' 측면 모두에 집중해야 함

10

Kalafsky, R. V., MacPherson, A.D., 2001. Recent trends in the export performance of US machine tool companies. Technovation 21, 709~717.

□ 개요

-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실적 하락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수준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함
 - 81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진행
 - 수출 실적과 응용·개발연구 간 강한 상관관계
 - 수출 실적은 고용 창출 기여하며, 수출 실적이 좋은 기업이 빠르게 성장
- 수출 고성장 기업과 저성장 기업 간 특징을 구분함

□ 연구맥락

-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쇠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시작됨
 - 1955년 55%에 달했던 글로벌 생산점유율이 1999년 11%까지 하락했으며, 1980~1994년 사이 일자리는 5만개 소멸
 - 같은 기간 일본의 글로벌 생산점유율은 1999년 22%까지 상승
 - CNC 탑재 공작기계의 최대 수입국
- 1990년대 공작기계산업의 수출강도(수출/생산)가 25% 수준까지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수도 5.9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연구결과

- 수출 성과가 좋은 기업이 고용 창출, 시장 성장, 매출 성장, R&D 집약도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가짐
- 수출 고성장 기업은 수출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 원천으로 전시회와 해외 공공기관을 적극 활용
 - 해외 공공기관을 통해 전략적인 수출 정보 획득 가능
- 현지방문 및 해외 유통업체의 활용은 고성장·저성장 기업 모두에서 나타남: 기계산업 고유의 특징인 비공식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의 중요성 확인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미국은 공작기계 내수시장을 수입 제품에 잠식당했다는 점에서 수출에 주목
- 동시에 R&D 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 11 Ernst, H. 2001. Patent applications and subsequent changes of performance: Evidence from time-series cross-section analyses on the firm level. *Research Policy*, 30(1), 143~157.

□ 개요 및 연구결과

- 50개 독일 공작기계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특허 출원과 매출 간 관계 분석
 - 특히 출원과 기업 매출 성과 간 2~3년의 시차 확인
 - 자국 출원 특허보다는 비용이 더 소요되나, 질적으로 우수한 유럽 출원 특허 (EPA)가 기업 매출 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특허 출원과 기업 매출 성과 간 시차(2~3년)에 대해 출원부터 시장 진입까지 24~36개월 소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함

□ 연구맥락

- 발명, 특허, 혁신 간 관계를 설명하고, 특히 기반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특허 출원 성향이 매우 유사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단일 산업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



<그림 7> 특허, 발명, 혁신 간 관계 모식도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본 연구는 '특허 → 혁신' 분석에 가장 적합한 종속 변인(특허 출원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직접 반영)으로 매출액을 활용함

**12 Baptista, R. 2001. Geographical Clusters and Innovation Diffus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66(1), 31~46.****□ 개요**

- 지리적으로 가까운 기업 간 네트워킹이 긴밀할수록 신기술 확산이 빠르다는 점을 영국 공작기계산업의 CNC 도입 맥락에서 실증 연구를 수행함
 - 신기술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와 지리적 근접성을 보유한 기업의 지역 내 클러스터링이 기술 모방과 개선 촉진
- 신기술, 비체계적 특성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확산에 용이함

□ 연구맥락

- CNC: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950년대 처음 개발되었지만, 1970년대 마이크로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됨
- 영국 공작기계산업은 1969~1980년 사이 CNC를 도입함
 - 비교적 복잡하고 비싼 기술로, 초기에는 대기업이 주로 채택하였으며(1968년 최초) 1980년까지 10개 지역 1,035개 기업 중 284개 기업이 CNC 기술 채택

□ 주요 연구결과

- 지역 내 기업 간 학습 효과는 관찰되었으나, 국가 수준에서 기업 간 학습 효과는 확인하지 못함
 - 학습의 지역 내 유행 효과
 - 지리적 근접성에 기반한 기업 간 네트워킹은 지식확산의 경제에 매우 중요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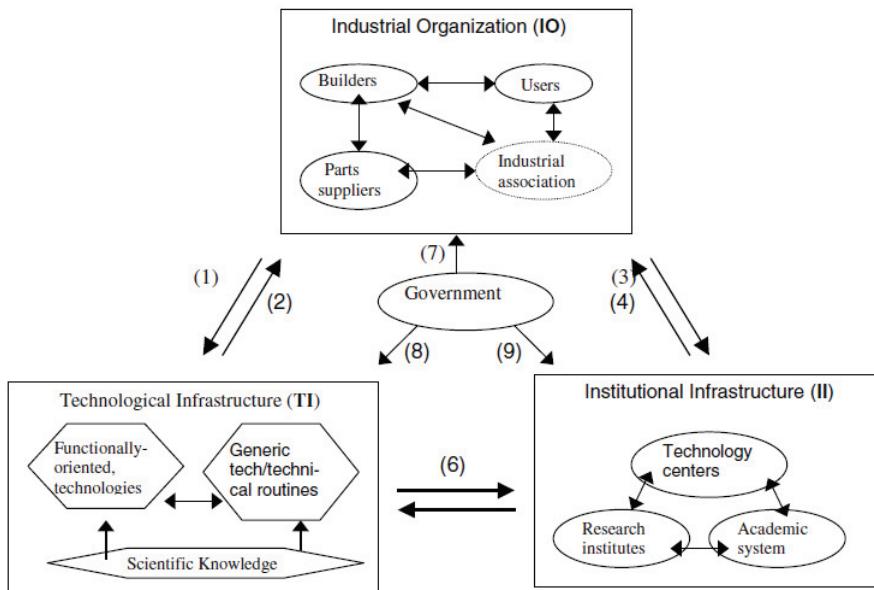
- 지식 공유·확산을 위한 기업 간 네트워킹은 지리적 특성이 강해서 지역별 지식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지리적 범위가 좁을수록 신기술 확산 효과가 큼
- 따라서, 지역별 기업 간 네트워킹 촉진을 통해 신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언함

- 다만, 과도한 특정 지역 집적은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므로 주의해야 함

13 Sung, T. K., & Carlsson, B. 2003. The evolution of a technological system: The case of CNC machine tools in Korea.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3(4), 435~460.

□ 개요

- Carlsson and Stankiewicz(1991)이 제시한 기술시스템(Technological Systems)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 공작기계산업의 진화 과정과 성과를 분석함
 - 기술시스템이란 특정 기술 영역, 제품, 제품군, 그리고 특정 제도적 하부 구조하에서, 상호작용하여 기술을 생성·확산·활용하는 행위자 네트워크
 - 기술시스템은 산업구조, 기술적 하부구조, 제도적 하부구조, 정부로 구성
 - * (산업 조직, 산업 네트워크) 제품을 생산하거나 구매하기 위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네트워크
 - * (기술적 하부구조) 공공적 성격의 기술
 - * (제도적 하부구조)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술센터(측정 및 테스트 기법 개발)
 - * (정부) 기술시스템의 동적 효율성 촉진 역할, 급격한 기술적 변화 발생 시, 기술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Note: structure or organization agent, actor, or institution
 knowledge, technologies, or capabilities
 flow of information or interactions among infrastructures, actors, and institutions

<그림 8> 기술시스템의 구성 개념

- (기술시스템 다이나믹스) 태동기 → 유아기 → 청소년기로 구분할 수 있음
 - 혁신 주체의 종류와 그 활동의 기능·범위·강도에 따라 각 단계의 특성 구분
- (1) 태동기(기술의 발생): 신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전 단계
- (2) 유아기(개발과 혁신): 신기술의 첫 상업적 활용 단계
- (3) 청소년기(확산): 신기술의 다양한 활용처 발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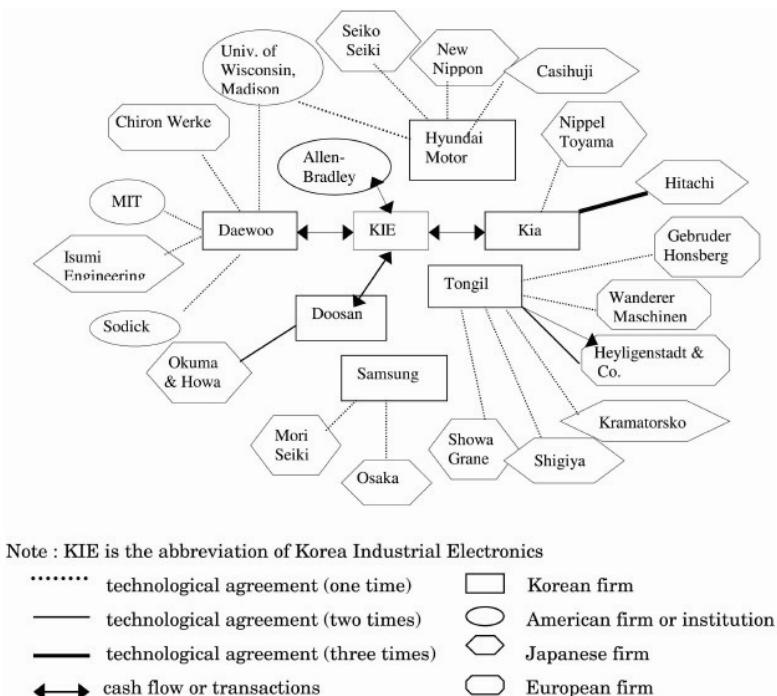
□ 연구 맥락

- 한국 공작기계산업의 기술시스템은 CNC 선반의 생산(1977년)과 국내 수요가 크게 증가한 1987년을 기준으로 태동기, 유아기, 청소년기로 구분

□ 주요 연구결과

- 태동기는 신기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전 단계(1977년 이전)를 의미함
 - 일본으로부터 전통적인 공작기계 기술 도입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후 수출
 - (정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한 수요산업 성장
 - (재벌 시스템) 소수 대기업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 하에 내부 재무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여러 인센티브 부여
 - (산업조직) CNC 공작기계 수입 시작, 화천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 (기술적 하부구조) 미국 기업 KOMY의 한국 반도체 사업 진출
 - (제도적 하부구조) KIST 설립, 대학의 관련 학과 개설
- 유아기는 신기술의 첫 상업적 활용 단계(1977~1987년)를 의미함
 - 외국 기술을 꾸준히 도입하여 흡수역량 확보: 일본, 미국, 유럽 등 대상은 다양하며, 특히 미국은 MIT, 위스콘신대 등 학교도 포함됨
 - (산업조직) 최초의 CNC 선반, 해외 유치 과학자(KIST)와 화천 간 협력의 산물 + 1980년대 초부터 재벌 계열사들이 진출했으며, 계열사 수요기업과 협력하거나 수요기업이 직접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등 다양하게 확인
- * 재벌 기업 중심 9개 기업이 산업 선도: 현대, 기아, 통일, 삼성, 두산, 대우 등

- (기술적 하부구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질적 전환 달성(단순조립 생산→복잡한 웨이퍼 가공 및 생산)
- (제도적 하부구조) 창원기계공업단지 내 한국기계연구원 설립
- (정부) 금융지원과 규제를 통해 산업 성장 도모
 - * 금융지원을 통해 재벌기업의 CNC MT 산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학습기간 단축
 - * 중소형 CNC 선반은 수입 통제함으로써, 자체 생산한 CNC MT 사용을 강제함
 - * 국내 CNC MT의 국내/외 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
-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라는 연계기관(Bridging Institutions) 설립
 - * 해외 CNC MT 수입제한 조치 시, 수입할 수 있는 품목 결정
 - * 정부가 융자 지원 정책 시 기업 생산, 수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계 집적화



<그림 9> 유아기 국내 공작기계 기업별 해외기업과 기술 제휴 네트워크

- 청소년기는 신기술의 다양한 활용처 발견 단계(1987년 이후)를 의미함
 - 1980년대 후반, 국내 수요기업의 CNC 공작기계 사용 급증
 - 1990년대 후반, 대우를 중심으로 머시닝센터 생산이 가능해지며 전 기종 생산
 - (산업조직) 한국산업전자, 기업과 제휴로 CNC 개발 시도, 31개 기업 포함
 - (제도적 하부구조) 서울대 제어계측신기술연구센터의 활동,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활동

-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공작기계 기업 간 연계) 미국, 이탈리아, 독일 등 자동차 제조기업 중심
 - (정부) 1995~1999년, 대형 R&D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CNC 국산화 시도
 -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G7 프로젝트(선도기술개발사업)를 추진했으나, 한국의 협력 문화 부족, 합리적 R&D 자금 배분 문제 등이 지적됨
 - (벤처기업) 터보텍의 등장, 1997년 코스닥 상장, 기술보증기금 지원
 - 1990년대 후반, 한국 CNC MT 기술시스템은 자립단계에 이름
- 태동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친 한국 공작기계 기술시스템을 요약하면,
- (해외 기술시스템과의 관계 진화) 단방향의 기술 도입에서 해외 수요기업과 쌍방 소통으로 발전
 - (정부의 역할 변화) 중화학공업, 금융·수입 제한 정책과 같은 직접 개입에서 중대형·중장기 R&D 프로젝트 지원과 같은 간접 개입으로 변화
 - (구성요소 간 연결성 변화) 공작기계의 수입 사용에 따른 약한 연결에서 재벌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계열사 간 연계에 따른 구성요소 간 연결성 점차 강화
 - * 재벌이 critical mass of interactions 제공했음을 강조
 - (필요 기술경쟁력의 변화) 모방, 흡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창의, 선택 등
- 기술시스템의 구축 성과를 현시비교우위지수 3가지 RCA(무역, 글로벌 경쟁력), RTA(특허, 기술), RPA(논문, 제도)로 측정함
- 1981~1987~1997년에 꾸준히 상승, 하지만 RPA만 1 이상(1997년 기준): 결국 양적 측면에서의 성장을 의미함
 - * 글로벌 경쟁력, 기술적 인프라는 상대 열위에 있으나, 교육/연구시설 인프라는 상대 우위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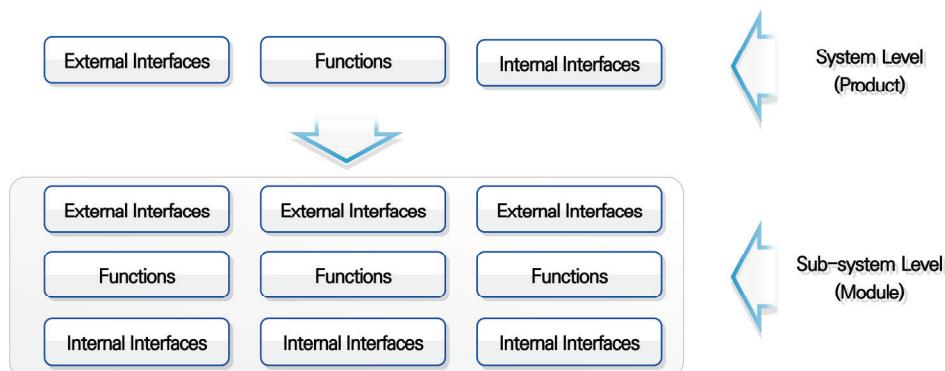
- 공작기계산업과 같이 기술수명주기가 긴 산업에 대해 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산업의 진화 분석
 -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정부가 복합적으로 기업가적인 역할을 한 것이 주효했음
 - 특히, 기술수명주기가 긴 특성으로 인해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 정부 또한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Baptista(2001)와 달리, 추격 과정에서는 해외 기술시스템으로부터의 연계가 학습에 더 중요함을 강조함
- 산업 진화 단계별 맞춤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초기) 태동 및 유아기로 기술 및 제도적 하부구조 구축
 - (후기) 청소년기로 시스템 내 하부구조 간 연계 및 다양성 추구
 - (자립단계)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미세조정

14 Chen, K. M., & Liu, R. J. 2005. Interface strategies in modular product innovation. *Technovation*, 25(7), 771~782.

□ 개요

- 모듈라(modular) 제품 혁신에서의 인터페이스 전략에 관한 이론 개발 및 대만 공작기계에 적용함
 - 제품을 서브시스템과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기술시스템으로 정의함
 - 인터페이스를 부품간 상호작용 관계의 속성으로 정의하고 내부, 외부로 구분
 - * 내부: 스스로 생산하는 부품 간 인터페이스
 - * 외부: 외부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스스로 생산하는 제품 간 인터페이스(보다 높은 수준, 보완 제품과의 연결, 시스템 구현을 위한 인터페이스)
 - * 인터페이스상 상호작용을 연결, 전송, 변환, 제어로 구분



<그림 10> 제품의 계층적 구조와 인터페이스

- 대만 공작기계산업의 개방형 공급 네트워크 구조는 대만 공작기계 모델 간 높은 개방성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제품 혁신을 제한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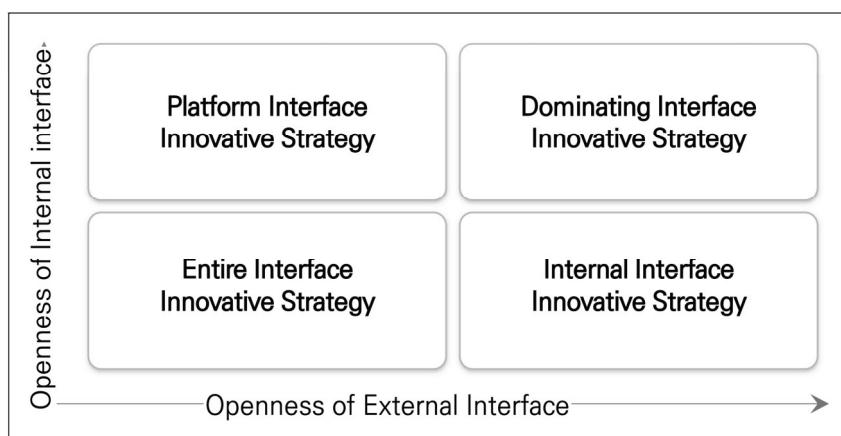
□ 연구 맥락: 내외부 인터페이스 개방을 통한 모듈라 제품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

□ 이론적 배경

- 모듈라 제품 혁신은 신제품의 초기 출시, 짧은 납기, 비용 절감 등 장점뿐 아니라 분해와 재조립을 쉽게 함 →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핵심
- 인터페이스의 개방성을 ① 표준화 경향, ② 생산·사용에서의 인터페이스 지식의 공통성으로 측정하고 내부 인터페이스는 외부 인터페이스보다 폐쇄적임
 - 부품 생산 공급자 수가 적으면 공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내부 인터페이스는 더 폐쇄·제한적인 표준화가 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덜 민감하고, 기업은 제품차별화를 위해 폐쇄·제한적 경향이 강함
 - 반면 외부 인터페이스는 보완재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개방적임

□ 주요 연구결과

- 문헌 고찰에 기반, 모듈라 제품 혁신에서의 인터페이스 전략을 매트릭스로 제시
 - 내부 인터페이스 개방성: 부품 및 자사 제품 간 호환성
 - 외부 인터페이스: 타사 제품 및 상위 제품 시스템과의 호환성



<그림 11> 모듈라 제품 혁신에서의 인터페이스 전략 매트릭스

- 1사분면: 모듈라 제품 혁신 관점에서 산업 인터페이스 표준을 선도할 역량 보유
 - * 지배적 디자인이 정립된 제품, 산업구조는 붕괴(Disintegration)
 - * 공작기계는 제품 차별화,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해서 1사분면 전략은 제한적

- 2사분면: 모듈라 제품 혁신을 위해 외부 인터페이스 개방이 필요함
 - * 더 우수한 타사 부품 채택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패밀리 전략 도입 시 가능
- 3사분면: 모듈라 제품 혁신을 위해 내외부 인터페이스 개방이 필요함
 - * 선도형 제품의 특징(제품 수명주기 초기,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컨셉이 불명확)을 가짐
- 4사분면: 모듈라 제품 혁신을 위해 내부 인터페이스 개방이 필요함
 - * 성숙기 제품으로, 외부 부품 기업을 활용한 모듈라 아키텍처 제품의 성능을 제고함
 - * 개방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내부 서브시스템을 제품으로 전환: 외부 인터페이스와의 호환성이 더욱 개선되며, 산업 표준으로 자리매김 가능
- 인터페이스 혁신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듈 개발이 필요하며, 이때 인터페이스 혁신과 모듈 혁신은 순차적이거나 동시에 일어남
- 대만 공작기계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함
 - 대만 공작기계 생산량(세계 6위)의 1/3을 차지하는 3개 기업에 대한 사례연구
 - * A 기업: 생산 모델 VL1, VL2, VL3, ME(선도형 제품)
 - * B 기업: 생산 모델 FM1, FM2, FM3, FM4(선도형 제품)
 - * C 기업: 생산 모델 YM1, YM2, YM3(선도형 제품)
 - 내외부 인터페이스 개방정도 조사: 5점 척도
 - (A) 기존 산업 표준을 준용함 (5점)
 - (B) 여러 기업이 가지는 준(quasi-) 산업 표준을 준용함 (4점)
 - (C) 여러 기업의 제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됨 (3점)
 - (D) 특정 제품에서만 구현되지만, 생산량이 충분함 (2점)
 - (E) 특정 제품에서만 구현되며, 생산량도 한정적임 (1점)
- 대만 공작기계산업에 적용한 결과, 외부로 높고 내부로 낮은 인터페이스 개방성을 보유했으며, 선도형 제품에서는 내외부 인터페이스 개방성이 하락함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모듈라 제품 혁신 패러다임 하, 대만 공작기계산업의 인터페이스 전략은 외부는 표준·개방화, 내부는 비개방·수정을 통해 혁신하는 4사분면 전략임
- 뛰어난 글로벌 부품·모듈 공급사가 있다면, 1사분면 전략도 고려할 수 있음
- 외부 인터페이스 개방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결국 1사분면(글로벌 가치사슬 활용)과 4사분면(제품 내부 차별화) 관점에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함

- 15 Shibata, T., Yano, M., & Kodama, F. 2005. Empirical analysis of evolution of product architecture. Research Policy, 34(1), 13~31.

□ 개요

- 화낙(Fanuc) 수치제어장치 NC 및 CNC 아키텍처 진화에 대한 사례연구임
 - CNC 아키텍처가 통합형(integral) → 닫힌 모듈형(closed modular)으로 진화 → 점차 열린(open) 아키텍처로 진화함
 - * Open 아키텍처 진행 시, CNC 구성은 연산부(연산제어), 구동부(공구 움직임 제어), 표시부, 데이터 입출력 HMI(Human Machine Interface)
 - 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MPU)과 같이 획기적인 기술이 제품과 결합하면 아키텍처 진화 방향은 일시적으로 모듈형에서 통합형으로 역행하기도 함

□ 연구맥락 및 이론적 배경

- Hard-wired 기술 기반의 NC를 기존의 NC, Soft-wired 기술 기반의 NC를 CNC(Computerized NC)라 부름
 - Hard-wired: 제어기술의 원천이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1960년대 중반~1975년
 - Soft-wired: 제어기술의 원천이 MPU, 1975년(화낙 2000c 출시) 이후
- 모듈라 아키텍처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한 최초의 연구로 의미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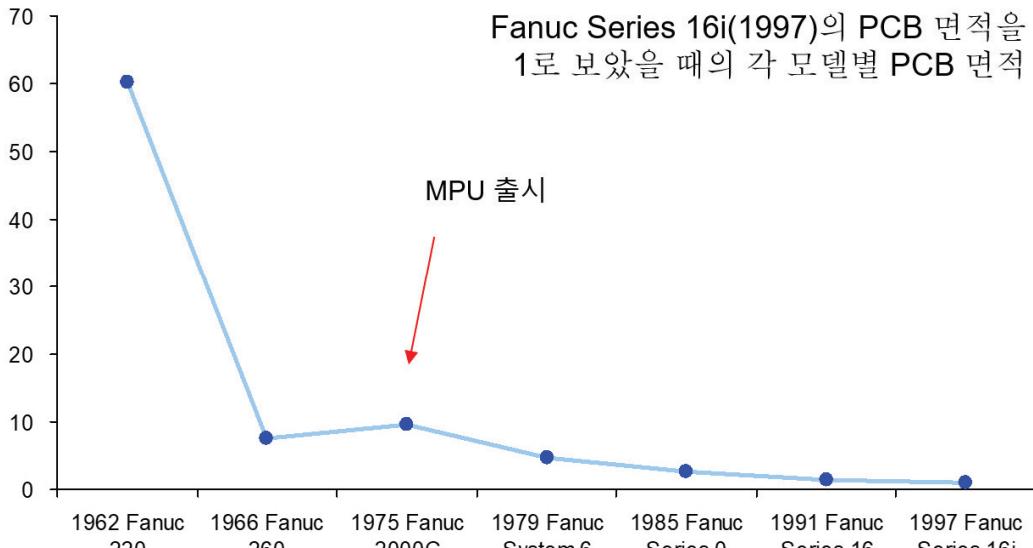
<표 5> 설계 방식의 유형과 개방 정도에 따른 제품 아키텍처 유형

		부품 설계 간 상호 의존도	
		Integral(조율형)	Modular(모듈형)
인터페이스 공개 여부	Closed (폐쇄)	<u>Closed Integral</u> 승용차, 오토바이, 경박단소형 가전제품, 게임 소프트웨어, 항공기, 펌웨어	<u>Closed Modular</u> 공작기계, Lego, 메인프레임 컴퓨터, 패키지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비공개)
	Open (업계 표준)		<u>Open Modular</u> * PC, Package Software, 금융상품, 패키지 소프트웨어(소스 코드 공개), 자전거, 인터넷, 상용차(트럭), LCD TV 등 가전제품

* 완제품, 부품 공급자를 넘어 완제품 구성에 대한 설계 정보가 사용자에게 개방됨을 의미

□ 주요 연구결과

- Hard-wired Logic 기술의 출현과 CNC 장치의 모듈화(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
 - Hard-wired Logic: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다양한 집적회로를 사용하여 고정 배선에 의한 수치제어 장치의 논리와 제어 동작을 실현
 - * 기존: 진공관 사용(화낙 201A, 화낙 220)
 - CNC 장치 아키텍처의 개방형 모듈화 달성
 - * 제어부 3개, 기본 옵션 모듈 9개, 확장 옵션 모듈 20개로 구성, 다양한 공작기계에 적용 가능
 - CNC의 Mass Customization(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다품종 대량 생산) 달성
 - 유지보수의 간편성 실현
 - 1967~1974년, 80~95%의 일본 수치제어장치 시장점유율 달성 → 공작기계 시장에서의 광범위한 채택 → 개방형 모듈라 아키텍처 CNC 개발 성공 시사
- Soft-wired Logic 기술의 출현과 CNC 장치의 통합화(70년대 중반~80년대 초반)
 - Soft-wired Logic: MPU 내의 제어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제어 동작을 실현하는 Soft-wired Logic 방식의 CNC 개발
 - * Soft-wired Logic: Built-in 컴퓨터의 형태, Hard-wired Unit과 달리 제어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입력하여 공작기계를 제어함
 - * Hard-wired Logic이 Soft-wired Logic보다 제어 유연성이 낮고, 수치제어장치의 소형화가 어려움
 - * 최초의 Soft-wired Logic CNC인 화낙 2000C 개발
 - 그러나, 화낙은 MPU를 채택한 Soft-wired Logic 방식의 수치제어장치에서 기존 Hard-wired Logic 방식보다 더 복잡한 기능과 부품간 대응관계에 직면
 - * 소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Soft-wired Logic 최초 모델 화낙 2000의 제어부 PCB 상대 면적은 hard-wired Logic 방식 마지막 모델인 화낙 260보다 더 큼
 - * 화낙이 회로 요소로 MPU를 새로 채택함에 따라, CNC 아키텍처 설계에서의 성능·신뢰성과 관련한 새로운 기술적 이슈에 직면
 - *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치제어장치의 아키텍처가 일시적으로 통합형으로 바뀌었고, 이로 인해 PCB 면적이 일시적으로 커짐(Shibata et al., 2005)
 - * MPU 등 신기술 채택에 따라 새로운 아키텍처 채택이 필요하나, 화낙은 제한적인 지식만 보유하여 초기에 시행착오를 범함
 - * 소비자 맞춤형으로 다품종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 시장점유율 20~3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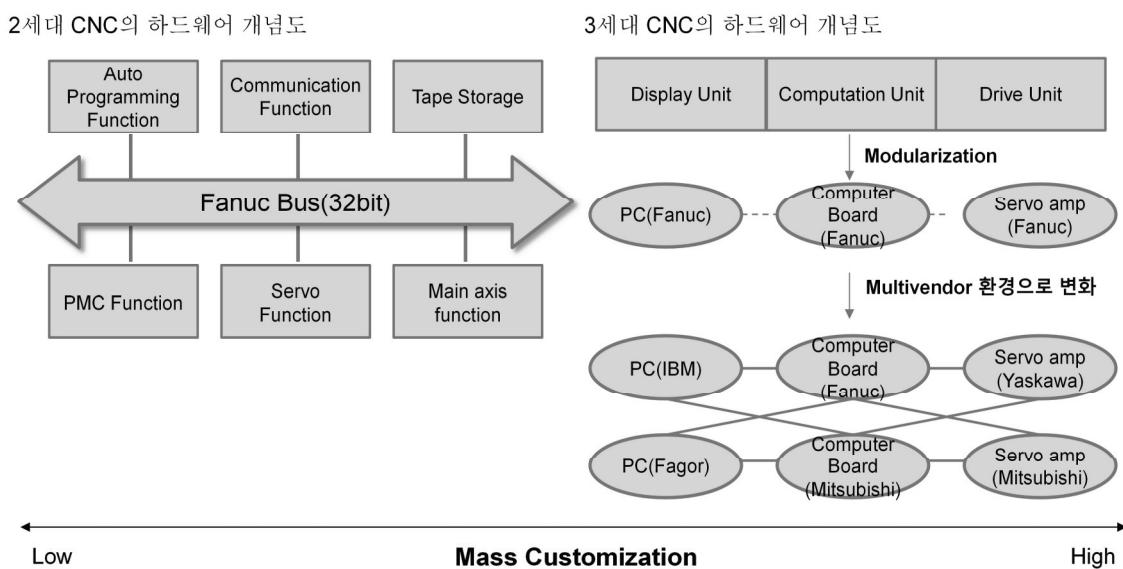


<그림 12> Series 16i의 PCB 면적(1) 대비 모델별 PCD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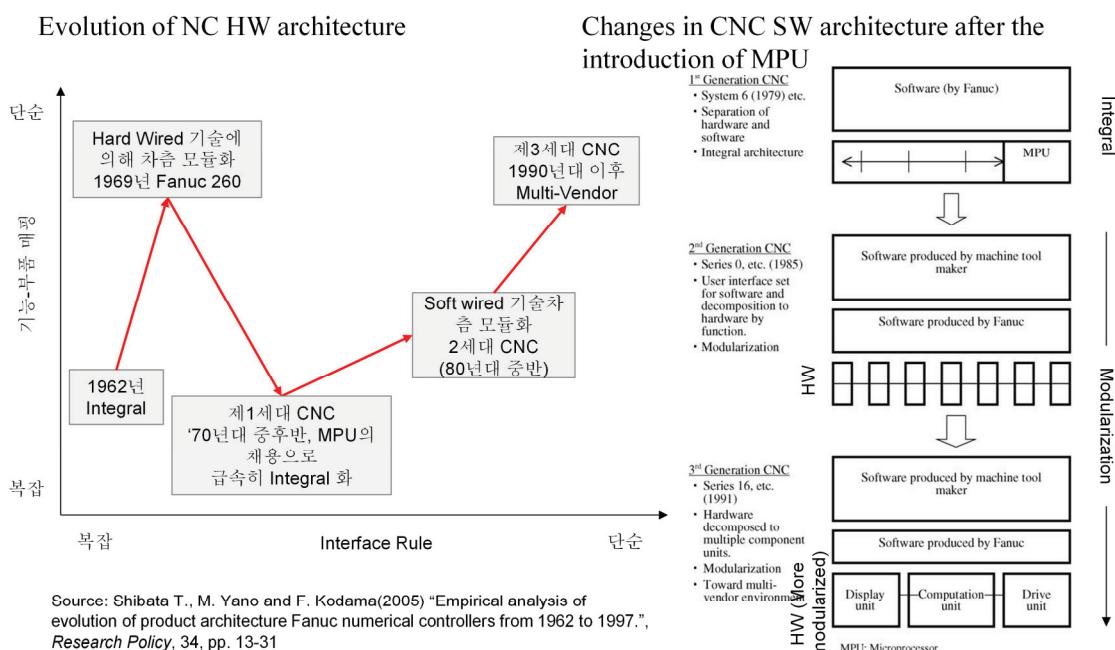
- 80년대 중반 이후, 수치제어장치의 개방형 모듈화에 성공(화낙 Series 0, 2세대 CNC)
 - 모든 하드웨어 모듈이 버스 형태의 공통 인터페이스에 연결
 - 소프트웨어 모드 사용자 선택 모듈과 범용 모듈로 구분되어 공작기계를 가동할 때 모듈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명확히 정립 → 개방형 모듈라 아키텍처를 의미함(Shibata et al., 2005)
 - Series 0 제품은 판매 종료 시점(2004년 7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5만대 팔리며, 단일 모델 기준 최다 판매 기록 보유(Kodama and Shibata, 2014)
- 3세대 CNC(Series 16, 1991년 출시) 이후, 기능과 부품간 연계를 더 단순화하여 Multi-vendor Environment 구축
 - 하드웨어 구성은 디스플레이, 연산, 구동 등의 서브 모듈로 더 단순화함
 - 소프트웨어도 서브 모듈별로 맞춤형 생산 및 고객의 요구에 따라 독립적 수정이 가능하도록 구현 → Multi-vendor Environment 가능
 - 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압도적인 점유율을 회복했으며, 80년대 말 화낙의 일본 내 수치제어장치 시장점유율은 80%를 상회,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50%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공작기계와 같이 맞춤형 제품 개발 경향이 강한 분야에서 원가 절감 및 대량 생산을 위해 모듈화가 촉진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모듈화 달성을 위한 학습 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형 아키텍처보다 훨씬 더 높은 조직 역량이 필요함



<그림 13> 2세대 CNC와 3세대 CNC 개념도 비교



<그림 14> 화낙 NC 및 CNC 아키텍처 진화

16

Kalafsky, R. V., & MacPherson, A. D. 2006. The post-1990 rebirth of the US machine tool industry: A temporary recovery? *Technovation*, 26(5~6), 665~671.

□ 개요 및 연구맥락

- ⑩ Kalafsky, R.V. & MacPherson, A.D. (2001)의 후속 연구
 - 미국 공작기계산업은 1990년대 중반 점진적인 회복기에 진입했으나, 2000년대 초 세계 경기침체에 따라 회복세가 크게 꺾였으며, 기업의 시장 퇴출도 증가
 - 설문, 생산·무역 데이터, 인터뷰 등을 토대로 산업 현황 조사 및 경기 회복 상황 평가 후 미국 공작기계산업에 제언함

□ 주요 연구결과

-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쇠퇴 원인으로 수요 측면에서 ① 방위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② 초고가 제품·과도한 전문화, ③ 일본, 독일 대기업과 경쟁할 기업의 부재(가족기업 특성, 반독점법 관련 인수합병 부진)를 꼽음
- 업계에 설문한 결과, 미국 공작기계산업의 문제점으로 아래의 10가지가 꼽혔는데, 이 중 PL법(Product Liability, 제조물 책임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노동 가용도(3.6, 평균값), 수입경쟁(3.2), 수요주기(3.2), PL법(3.0), 내수 경쟁(2.7), 쇠퇴하는 로컬 시장(2.6), 연방세(2.5), 지방세(2.5), 근로자 보상(2.4), 정부의 번거로운 절차(2.4)
- 노동 가용도(availability): 숙련공 부족,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감소, 신규 노동자 진입 부재
- PL법: 시장에 유통된 상품의 결함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의 생산·판매 과정에 관여한 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제조사 등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법
- PL법으로 인해 설계, 응용연구, 생산 및 관련 지원 활동에 필요한 투자 한계
- 2000년 조사 기업을 대상으로 4년 뒤 재조사한 결과, 104개 기업 중 14개는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5개는 완제품 생산에서 부(분)품 생산으로, 19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등 총 38개의 기업이 감소함

- 퇴출 기업과 생존 기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존 기업은 퇴출 기업과 비교할 때 아래의 특성을 가졌으며, 지속적으로 수출 시장을 공략하여 생존함
 - 로컬 시장에 대한 낮은 의존도, 높은 R&D 집약도, 부품 및 SW의 해외 조달, 높은 신제품 매출 비중, 수입 제품과의 경쟁 및 노동력 부족에 적절히 대응
- 산업 회복을 위해 빠른 납기와 짧은 신제품 개발주기, 맞춤형 제품 개발 강조
 - 미국 기업은 기성품 판매에 익숙하며, 일본보다 가장 열위인 분야로 꼽힘
 - * 빠른 납품(4.09), 고객지원 개선(4.08), 제품 품질 개선(4.07), 더 짧은 주기(3.95), 기술 데이터 업그레이드(3.95), 생산 증가(3.93), 인터넷 활용(3.83), 단가 절감(3.82), 고객사 개선(3.80) 등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공작기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의 중요성 강조
- 숙련공 이슈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한국 공작기계산업에 기회이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문제로 꼽힘

17

Lim, C. 2007. Catch-up failure in core IT components: The case of numerical controllers.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15(2), 101~124.

□ 개요

- 기술 체계 및 시장 특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CNC 추격 실패를 설명
 - CNC의 지식기반 특성은 높은 암묵성·일반성·복잡성·전유성에서 기인함
 - * 공작기계 CNC 추격 실패 사례는 곽기호, 김원준(2016) 참고

□ 주요 연구결과

- 미국의 Allen Bradley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 기술 라이센싱 및 협력 실패
 - 1988년에 JV로 설립, Allen Bradley가 지분 35% 투자, CNC 생산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국에 법인 설립

- JV는 국문 번역이나 한국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하였으나, 예상치 못하게 NC Unit 성능 저하에 직면
 -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엔지니어도 미국으로 돌아가며, 낮은 성능에 그침
 - 성능 향상 실패를 인정하고 1991년 이후 교육용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충분한 매출 확보에 실패, 1993년 Allen Bradley가 지분을 철수하며 1990년대 말 파산
- LG산전(現 GS산전)이 일본기업과의 라이센싱 및 개발에 실패함
 - LG산전은 PLC 및 서보 모터, 서보 모터 드라이브에 기술 역량 보유
 - 이는 NC와 관련 기술이긴 하나, NC팀은 PLC·서보 모터·드라이브에 축적된 기술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며 학습의 연속성이 단절됨
 - 라이센스 제품 판매 및 내부 개발을 조건으로 일본기업과 기술 라이센싱을 체결하였으나, 곧 기술 라이센싱이 내부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일본 기업에 비밀로 한 채 별도의 개발팀을 구성함
 - (실패) 제품 생산은 1990년대 중단
 - 개발 이후 사용자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성능 개선에 실패
 - 세일중공업(이후 와콤전자, 큐리어스)가 교육용으로 1991년 센트롤-프로를 개발했으나, 이는 NC 공작기계에 부착되지 않아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 (고객화 지식 획득 실패) 개발 이후 사용자 맞춤형 사양 대응 및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실패
 - 터보테크, 삼성, 세일중공업에서 봉착: 시장점유율이 낮아, 커스터마이징 경험 축적에 실패
 - (신뢰성 지식 획득 실패) CNC SW 특성상 사용자 환경에서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판매하여 신뢰성을 테스트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 어려움 직면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기술 추격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설명하는 연구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며, 기술 시스템에 부분적 시장 체제(Sectoral Market Regime)라는 개념 보완

- 부분적 시장 체제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식과 고객화 지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실패의 원인으로 꼽았으나, 왜 신뢰성 지식과 고객화 지식을 확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함

18

Chen, L.-C. 2009. Learning through informal local and global linkages: The case of Taiwan's machine tool industry. *Research Policy*, 38(3), 527~535.

□ 개요

- 후발주자가 추격할 때 하이테크 산업은 라이센싱 등 정형화된 경로를 통해 기술을 획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공작기계와 같은 중저기술 산업에서는 비정형화된 경로를 통한 기술 획득이 중요함
 - 과거 Lee et al.(1988)은 개도국의 기술 추격 시, 초기에만 비정형화된 경로를 통한 기술 획득이 중요하다고 주장

□ 연구 맥락

- 2006년 기준, 세계 4위의 수출국이자 6위의 생산국인 대만 공작기계산업 60개 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2005~2006년)
- 대만 공작기계산업의 성장 원인은 앞서 ⑭ Chen & Liu (2005)와 같이 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집합적 생산 효율성 확보 및 상호작용적 학습이라고 정의함
- 기계산업을 중저기술(LMT, Low and Medium Technology) 산업으로 분류
 - (점진적 혁신) 산업 수준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R&D 집약도 및 활용, 고객 요구사항에 맞추기 위한 노력
 - * CNC 기술 등장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 기업들의 핵심 경쟁력은 여전히 기계 분야에 있음
 - * 기계 분야의 학습은 on-the-job practice 특성, 직접 제조와 사용을 통해 학습
 - (모방을 통한 학습) 일본 공작기계산업의 시작도 모방임을 강조하며, 대만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지속적인 재설계와 문제 인식 및 해결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함(현지 사용 조건과 고객 요구사항 충족)

- (숙련공의 역할 강조) 기계기술은 암묵지 형태로 현장 경험을 통해 구축되므로 이를 내재한 엔지니어가 점진적 혁신과 모방에 더 효과적임

□ 주요 연구결과

- ① 대만 산업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로부터의 비정형적 학습
 - 현지 사용자에게 명확한 니즈를 확인하고, 현장을 시험대로 활용하여 학습
 - 대만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하나의 공작기계로 다양한 가공작업을 하기 원함
→ 대만 공작기계 기업이 중저가 및 다목적(범용) 세그먼트에 강한 이유
 - 공작기계 사용 현장에서 테스트에 기여: 현장의 피드백을 최종 제품에 반영
 - 기술 에이전트의 역할: 수입 공작기계 사용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며, 수입 공작기계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는 매뉴얼을 통해 해결하며 학습함
 - 현지 부품공급사 중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급사와 비공식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급사로부터 경쟁사의 기술 정보를 확보함(공작기계 제조사 간 간접 학습)
 - 공공연구기관과는 1979년에 설립된 기계공업연구소(MIRL)가 1995년에 대만 공작기계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지인 타이중으로 옮긴 후, 현지학습 네트워크에 속하며 보완적인 R&D 서비스를 제공함
- ② 글로벌 혁신 주체로부터의 비정형적인 학습
 - 국제 무역 박람회(전시회)를 통해 비용 효율적으로 기존·잠재 고객에게 접근하고, 해외 유통업체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OEM·ODM 계약을 체결함
 - 해외 딜러에게 제품 개선·개발 방향, 기술적 문제 해결 방안을 획득함
 - 과거 제조기업이었으나 유통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기업은 기술적 지식이 풍부하며, 보완적으로 부품 제조사 역할을 함
 - 선진기업과의 기술라이센싱(OEM·ODM)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학습함
 - 모방 제품으로 성공한 대만기업과의 소송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기업이 라이센싱 계약 제안: 잠재적 학습 및 마케팅 채널 구축에 활용

- OEM·ODM 계약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접근, 계약 제조사가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정보 획득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기계산업의 비정형적인 경로를 통한 성장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대만과 같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특히 중요함
- 중소기업이 비정형적인 경로로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출연연의 보완적 역할이 중요함
- 비정형적인 학습을 위한 흡수역량 축적, 글로벌 연계 지식 채널 구축 등

19 Brandt, L., & Thun, E. 2010. The fight for the middle: Upgrading, competi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World Development*, 38(11), 1555~1574.

□ 개요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로컬기업의 성장 제한 우려가 있었으나,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며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함
- (연구 문제) 중국 내수시장에서 로컬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Foreign-invested Enterprise) 간 경쟁의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했는가?

□ 연구맥락: 중국 공작기계와 건설기계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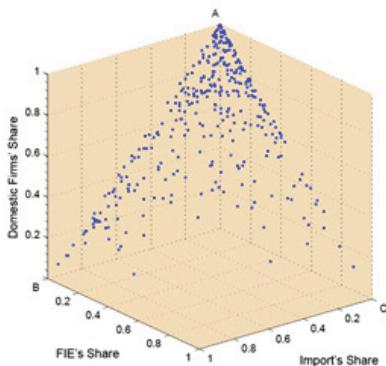
- 중국이 글로벌기업 대비 열위에 있는 산업이면서 유사한 혁신 특성
- 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 주요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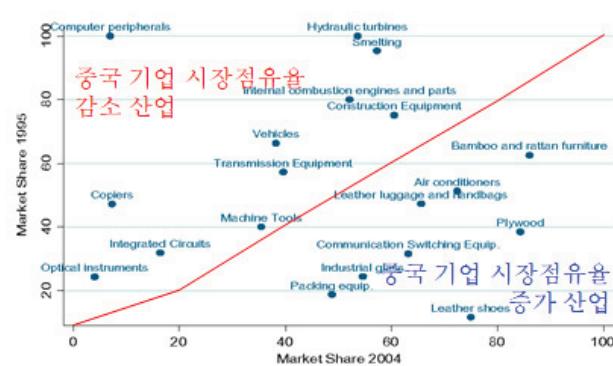
- 중국기업은 로컬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모두 참여해 기술 역량 축적 효과가 큼

-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내수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점유율은 하락함
 - 외국기업들은 기술, 자본, 제조 노하우, 마케팅의 조합이 특히 중요한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 중국 기업들은 비용 저감과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선전

1. 1995년 중국 제조업 국내 기업/해외기업/수입 점유율



2. 1995년, 2004년의 중국 제조업별 국내 기업의 점유율



<그림 15> 1995년과 2004년 중국 제조업 경쟁력 변화: 시장점유율 중심

- (좌) 1995년 중국 제조업 로컬기업/해외기업/수입 점유율
(우) 1995, 2004년의 중국 제조업별 로컬기업 점유율

- 로컬기업에 중요한 저가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기술력 흡수와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가성비 전략으로 경쟁함
 - 저가 시장, 즉 중국 내수시장은 수출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현지 기업들에 매우 중요(Williamson et al., 2021, Business Horizons의 Ladder와 유사 개념)
 - *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선진기업과의 기술격차, 마케팅격차를 많이 추격함
 - 공작기계 시장은 경제 개혁 이전까지 국영기업이 장악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까지도 100개 이상의 국영기업이 10,000대 미만의 생산에 그침
 - 수입 공작기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 제품과 국산 제품 간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짐
 - * CNC 선반 등
 - 저가 시장에서의 선전 이유로, ① 공기업이 파산 및 인수합병되며 생긴 공백을 그들의 기술력을 흡수한 민영기업이 차지, ② 핵심 부품의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저가 제품의 가성비를 확보한 점을 들 수 있음
 - * 스피드, 베어링, 볼스크류, 모터, CNC 등은 공통 디자인에 기반, 거의 동일한 형태로 다양한 공작기계 회사에 공급(준-모듈라 아키텍처 시사)

- 고가 시장에서의 압력을 오히려 기술 습득의 기회로 활용함
 - 공작기계 수입 관세가 98년 14.2%에서 06년 10.3%로 하락하며 수입이 많이 증가했으나, 오히려 수입제품에서 기술을 습득해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갖춤
 - 이에 따라, 고가 시장에서의 저가 제품군에서는 중국이 시장 성과 확대(예: 버티컬 머시닝 센터, 수평형과 플라노는 고가)
- 중류 시장(Middle market)을 위한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은 글로벌기업은 현지화를 통해 극복할 방안을 모색함
 -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중류 시장 진입을 위해 글로벌기업은 비용 절감, 로컬 기업은 기술 및 품질 제고를 주요 과제로 꼽음
 - 글로벌기업은 종합(aggregation)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노렸으나, 개도국에서 매력적인 충분히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기존 부품 공급사와 중국에 동반 진출하기도 어렵고, 로컬에서 양질의 부품 공급업체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기업은 현지화를 시도함: JV 설립, 부품은 수입하되 노동 집약적 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글로벌 부품 업체들이 중국 현지에 부품 공장을 설립하며 더욱 확대됨
- 로컬기업은 중류 시장에서 기술 습득, 인력 양성 등 충분한 이익을 확보함
 - 글로벌기업은 중국시장 현지화를 위해 기술 유출을 막으며 로컬 부품을 조달하고자 하였으며, 중국 부품 공급기업은 막대한 시장 규모에 기반하여 다수의 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기술력을 고도화함
 - JV를 통한 해외 공급사와의 협력 확대는 현지 인력 양성에 매우 효과적임
 - * 해외 기업으로부터 훈련받은 인력들은 다시 다른 국내 기업으로 재취업하여 역량 내재화
 - * 선진기업이 원가 절감 압력에 봉착하여 고부가가치 활동을 중국 현지화함에 따라, 투입되었던 인적자원들이 현지 기업들로 재취업하는 풀 형성
 - 중국 국영기업이 구축한 역량 활용: 과거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풍부한 사업 경험을 축적함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중국 내수 시장의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 이후, 중국 기업의 성장을 시장 세그먼트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
- 저가 시장에서 출발한 중국 로컬기업이 고가 시장에서의 관세 인하 및 수입 물량 증대에 따른 기술 습득 그리고 막대한 종류 시장 규모를 활용한 외부 기술·인력을 확보한 것은 기술적으로 성숙한 산업에서 효과적임
- 다만, 이런 성장 방식은 점진적인 기술 혁신 분야 또는 기술 변화 속도가 느린 산업에만 적용 가능
- 중류 시장을 누가 획득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한국을 비롯한 선도국에 주어진 과제
 - 중국 로컬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현상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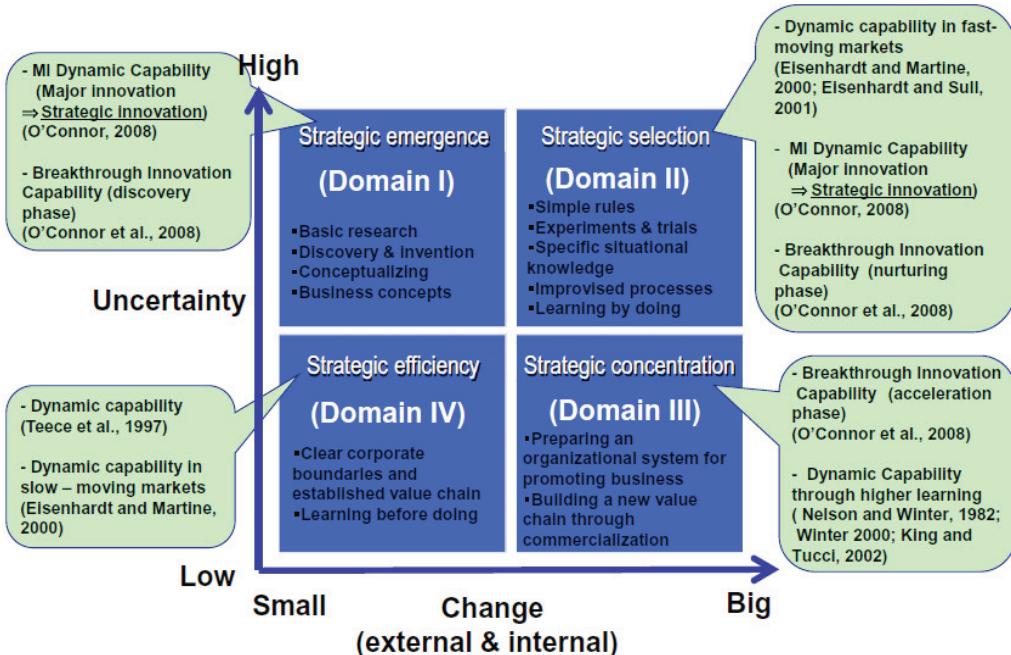
Kodama, M., & Shibata, T. 2014. Strategy transformation through strategic innovation capability - a case study of Fanuc. R&D Management, 44(1), 75~103.

□ 개요

- 대기업의 전략적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안
 - 전략적 혁신 역량: 혁신에 의한 전략적 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 시스템 및 조직 역량으로 정의
 - 전략적 혁신: 새로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술과 시장에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전략적으로 생산
- 연구 프레임워크를 화낙에 적용한 후, 역사적 고찰을 기반으로 전략적 전환 달성을 과정을 분석함
 - 화낙이 후지츠 사내벤처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대기업의 전략적 전환으로 구분

□ 전략적 혁신을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 개발

- 대내외 환경변화(X축) 및 전략적 불확실성(Y축)을 축으로 설정
 - 전략적 불확실성: 시장, 기술, 조직, 자원의 불확실성
 - 환경변화: 외부(시장, 기술) + 내부(조직, 자원 집중)



<그림 16> 전략적 혁신을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

- (영역 1) 불확실성은 크지만, 대내외 환경·전략 변화는 적은 상황
 - 기술 창출기
 - 탐색 단계, 전략적인 부상(emergence)으로 정의
 - 성공조건: 말단과 중간관리자의 창의적 사고, 최고 경영진의 전략적 참여·현신
- (영역 2) 높은 불확실성 속内外부 환경/전략 변화까지 많은 상황
 - 인력의 사내 확보와 조직의 발전 정도가 빠르게 변화
 - 보육/육성 단계, 전략적 선택으로 정의
 - 성공조건 1: 실험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고(Trial & Error)
 - 성공조건 2: 중간 관리자와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 더욱 중요
 - * 유망하고 가치가 높은 사업 영역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방법이 중요

○ (영역 3) 불확실성 축소, 새로운 비즈니스 본격 전개

- 기술활용기, 촉진(acceleration) 단계로 정의
- 신규 사업을 기존 사업 부문으로 이관(전담조직):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 수익 창출을 위해 높은 수준의 학습이 중요하며, 특히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최고·중간 관리자의 몰입이 중요함
- 전략적 집결(Strategic Concentration)로 정의

○ (영역 4) 대규모 기존 비즈니스로 점진적 혁신에서의 효율성 제고 노력

- 기본적으로 시장 성공을 이미 확보한 상태
- 전략적 효율화(Strategic Efficiency)로 정의

○ 전략적 혁신 역량 프레임워크의 4가지 영역 간 연속(Continuous) 루프를 구성

- 영역 1 → 2 → 3 → 4로 이동
 - * 전략적인 부상과 선택: 탐험(exploratory) / 전략적 집결: 활용(exploitation)
- 영역 4에 있던 기존 비즈니스는 영역 3에서 넘어오는 새로운 전략이 집결된 비즈니스와 통합 대상이 되기도 함
- 가장 중요한 이동은 영역 3, 4에서 1로 이동: 진정한 대기업의 전략적 전환
 - * 새로운 전략적 혁신의 태동을 의미하며, 새로운 역량, 루틴 개발을 통한 전략적 혁신 달성
 - * 엄격한 조직적 관성(rigid organizational inertia)의 재설정

○ 우수 기업은 연속 루프를 달성하며, 대기업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모든 사분면을 모두 가짐

- 탐험적(exploratory), 활용적(exploitative) 프로세스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내부 조직 간 인터페이스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 설계가 중요함

○ 전략적 혁신 역량의 구성요소는 전략적 혁신 역량 프레임워크 총괄 운영 역량, 도메인별·도메인 간 이동 역량, 탐험과 활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 역량임

□ 연구맥락

- 1982년 이후 일본 공작기계산업이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화낙이 CNC를 성공적으로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CNC는 화낙에 맡기고 공작기계 혁신에 전념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사용자 간 호환성 문제도 해소함
 - 화낙은 1972년 후지츠로부터 독립

□ 주요 연구결과

- ① 1단계(1956~1972년)
 - 사내 벤처로 시작: 후지츠의 통신 이외 사업 발굴 시도(영역 1)
 - 1956년 이나바의 개발팀, 후지츠에서 독립하여 자율성 확보
 - 1957년 첫 시제품 개발, 1959년 히타치에 납품하였으나 추가 사업화에 실패
 - Trial-and-Error 시도(영역 2)
 - 후지츠의 전자회로·통신장비 노하우를 활용하여, 동경대와 대수적(Algebraic) 펜스 분배 시스템과 전기유압 펜스 모터 공동 개발
 - 개방형 루프 제어기술 개발(미국의 폐쇄형 루프와 반대)
 - 1960년대 초, 기술적 아이디어는 후지츠의 교환기와 동경대 정밀공학과의 대포 제어 유압식 펜스 모터기술(후지츠는 영역 4에서 영역 1로 전환)
 - 1965년 이후 영역 3
 - 판매량 급증: 388(1965) → 483(1968) → 1184(1969) → 1684(1970)
 - 1969년 화낙 260: 완벽하게 모듈화되어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로 출하가 3배 증가하였으며, NC 비즈니스가 전략적 집결에 진입함
 - * 그전에는 전부 맞춤형 주문에 대응하며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맞춤형으로 대응하면서 원가 절감 문제가 크게 부상함

○ 1972년 이후 영역 4

-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전략적 효율화를 달성하였고, 후지츠로부터 분사함
 - * 1970년 후지츠 NC 사업부의 수익성은 20%로, 후지츠 전체 수익성 6%의 3배를 넘어섬
 - * 마침 후지츠는 컴퓨터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시급했기에 분리 매각함

○ ② 2단계(1973~1980년)

- 기존 유압식 펄스 모터 기술의 한계 + 개방형 루프기술의 한계 → 폐쇄형 루프 기술 + DC 서보모터 기술로 전환(영역 1, 2)

○ Hard-wired 제어 기술(기존의 NC) → Soft-wired 제어 기술(CNC)(영역 1, 2)

- Hard-wired: 제어기술의 원천이 트랜ジ스터, 다이오드, 1960년대 중반-1975년
- Soft-wired: 제어기술의 원천이 MPU 및 소프트웨어, 1975년 이후, 화낙 2000c 출시 이후

- 그러나 CNC로의 전환은 도전: 소음으로 인한 성능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 설계팀을 구성하고, Hard-wired 설계팀과 함께 운영

○ 1978~1979년에 CNC 기반 System 6 개발, 양산에 성공(영역 3, 4)

- 미국은 MPU와 같은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CNC 개발에 소홀
- Hard-wired NC 설계팀의 노하우가 Soft-wired NC 설계팀에 전달되며 영역 3, 4에서 영역 1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3단계(1981~현재)

- 베스트셀러(시리즈 0) 사례: 1985년 9월, 양산에 돌입하여 2004년 7월까지 생산

- 높은 신뢰성을 위하여 완전 자동화 기반으로 생산(로봇 활용)(영역 1, 2)
 - * CNC를 작게, 새로운 기능을 더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
 - * 실제 공장에서 발생하는 장비의 비계획적인 사용까지 고려하여 신뢰성 문제 해결
- 높은 신뢰성을 위하여 부품 수 축소, 부품 간 상호의존성 축소(영역 1, 2)
- 높은 신뢰성을 위한 새로운 SW 아키텍처: 혁신가로서의 소비자(CAI)(영역 1, 2)
 - * SW를 사용자 제어 섹션(공작기계), 공급업체 제어 섹션(화낙)으로 구분

- 화낙은 이미 시장 점유율 70% 달성, 이를 통해 공작기계 업체가 스스로 제품을 차별화할 수 있게 함
 - 해당 시장 점유율 수준에서는 고객이 혁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 화낙은 기본 SW만 제공 + 기능 옵션은 공작기계 업체가 스스로 확장
- 기존 화낙 200C 시스템 6에서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여, 영역 3, 4에서 영역 1로 이동(시리즈 0)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전략적 혁신을 위해서는 신규 조직의 탐험과 기존 조직의 활용 간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최고 경영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현재 개발 중인 CNC의 국산화를 위해 화낙의 성장단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 생산·인터페이스 표준화 및 SW 아키텍처의 개방화를 고려해야 함

21 Kodama, F. 2014. MOT in transition: From technology fusion to technology-service convergence. Technovation, 34(9), 505~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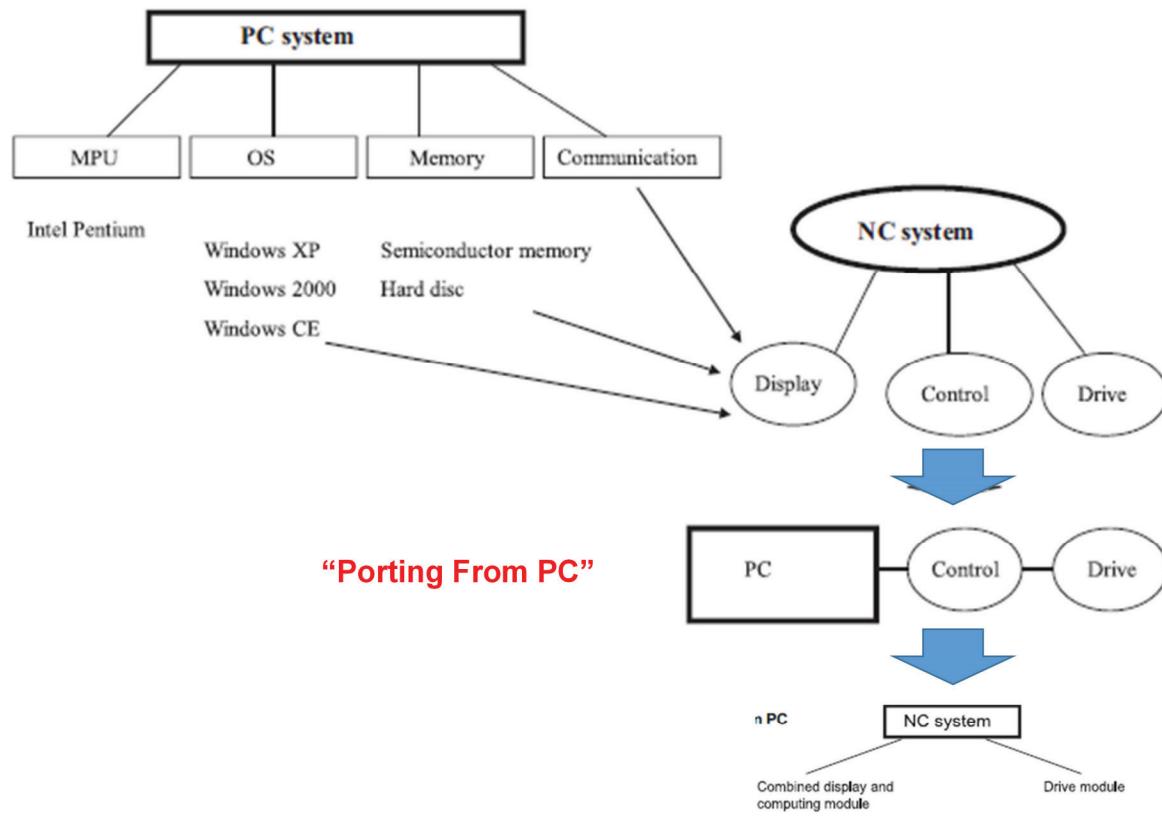
□ 개요

- 모듈화시대에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술 혁명 (Revolution) 보다는 기술 진화(Evolution)의 관점에서 이해
 - 진화: 체계적인 기획 아래, 급진적 혁신보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혁신 달성

□ 주요 연구결과

-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기술-서비스 융합 시대의 도래를 강조하고, PC 기반 CNC 공작기계와 건설기계 기업의 MIS를 예시로 제시함

- PC는 개방형 모듈라, CNC 공작기계는 폐쇄형 모듈라 아키텍처였으나, CNC 시스템이 개방형 모듈라 아키텍처가 되며 PC 기반 CNC 공작기계가 탄생함
 - * CNC 구성 디스플레이, 제어, 구동부가 멀티벤더 환경 구축(Shibata et al., 2005)
 - * PC의 기능이 CNC 디스플레이 유닛에 장착되어 구현됨에 따라 CNC 공작기계는 더 유연, 네트워킹 기능 강화 → PC, 인터넷 기반 원격제어 서비스 구현(제조업의 서비스화 형태)
 - * 애플 PC처럼 디스플레이에 PC 기능 탑재(이식; porting)



<그림 17> PC 기반 CNC 구성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기계산업의 기술-서비스 융합의 촉진을 위해 탑재하는 부품이 더 다양해야 함
-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의 도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중요성, 빅데이터를 잘 다루는 기업의 성장 지원이 필요함

22

Basterretxea, I., Charterina, J., & Landeta, J. 2019. Coopetition and innovation. Lessons from worker cooperatives in the Spanish machine tool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and Industrial Marketing*, 34(6), 1223~1235.

□ 개요

- 스페인 공작기계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원칙 개발과 경쟁우위 확보 관련 연구
 - 경쟁자와의 협력 포함(상호이익을 위한 경쟁사 간 협력, 'coopetition')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은 노동자 주도 협동조합이 R&D 유닛 공유, 공동판매 사무소 및 서비스센터 운영, 지식 교환 및 핵심 R&D 인력 재배치 등 상호협력을 주도하며 혁신과 국제화를 이룸

□ 연구맥락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 내에 협동조합이 많으며, 스페인 공작기계산업협회 (AFM)와 별개로 몬드라곤협동조합(Mondragon Group)이 존재
- 대부분의 스페인 MT 노동자 협동조합은 몬드라곤협동조합에 소속됨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은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며, 개도국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해외 고객이 증가하며 공동 마케팅의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함
 -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장 개발 활동에 애로사항 존재
 - (공동 마케팅) 세계 시장으로 함께 진출할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에도 유리함

□ 연구문제

- 노동자 협동조합이 경쟁사 간 협력에서 얻는 이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경쟁사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하였는가?
- 어떻게 경쟁사 간 협력과 관련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의 위험을 방지하였는가?

- 노동자 협동조합의 협력 사례는 다른 이해관계자(투자자 소유기업)에 잘 전달되고, 확산되었는가?

- 연구에서 11개의 자료원이 협동조합, 3개의 자료원이 투자자 소유기업임

□ 주요 연구결과

- R&D 유닛을 공유하면 더 크고 장기적인 R&D 협력을 유치하고 암묵지를 공유함으로써, 영세기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영세기업의 혁신 활동 한계 극복

- 점진적·반복적 혁신 활동이 주요 특성이라서 동일 파트너와 지속하여 협력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경영자의 적극적 지원 아래 복잡하고 암묵적인 지식 교환이 가능

- R&D 유닛의 공유는 더 큰 국제 R&D 협력(유럽 수준 등)을 견인하며, 장기 R&D에 특화, 미래 전략 수립, 급진적 기술 변화에 대응을 가능케 함

- 신시장에서의 영업 및 판매 후 서비스를 공동으로 추진하면, 직접 소통을 통해 지리적 특성에 대응하기 용이하며 더 유연하고 빠르게 응대할 수 있음

-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여, 고객과의 관계가 중요한 산업에 가치 제공

- 시장 맞춤형 제품이 지리적 특성이나 부문별 차이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

- 더 빠르고, 유연한 판매 후 서비스가 가능함

- 투자자 기업과의 협력은 영업 및 마케팅 활동과 무관한 영역으로 제한함

- 부족한 신뢰로 인하여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 협동조합 간 협력은 공작기계 시장이 세분되며, 각자 전문화된 영역의 중소기업으로 진화함

- 경쟁 관계에서 보완 관계로의 변화: 선반 시장에서 경쟁하던 기업들이 자동차 특화 선반, 일반기계 특화 선반으로 진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 협동조합 간 긴밀하면서도 장기적인 협력의 결과로 합병한 사례를 분석함

- 시장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객과 시장에 통합된 비전을 제시하여 영세성 극복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중소기업의 경쟁사 간 협력 관점에서 협동조합 간 협력은 비용 공유, 역량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위험 감소, 외부 지식·자원에 접근을 통해 성과 창출에 기여
- 다만, 협동조합 간 협력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분명한 협력 동기, 협력 촉진요인 확보, 협력 저해요인(기회주의적 행동, 외부로의 고유 지식 유출) 제거가 필요
- 따라서, 정부의 경쟁사 간 협력 지원은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들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23

Rafael, L. D., Jaione, G. E., Cristina, L., & Ibon, S. L. 2020. An Industry 4.0 maturity model for machine tool compan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59(July), 120203.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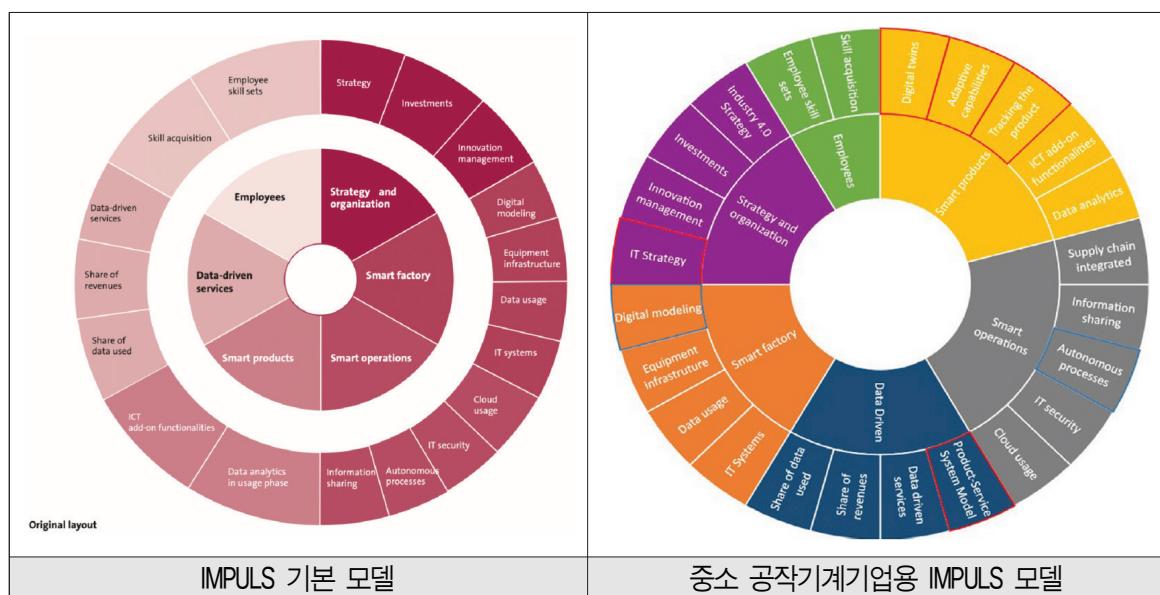
- 유럽의 공작기계산업 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기업별 4차 산업혁명 도입성숙도를 측정할 모델 개발(로드맵 제공)
 - 스마트팩토리, 가상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Services, 가치사슬 간 수평적 통합
 - Lichtblau et al.(2015)의 IMPULS 모델을 중소 공작기계기업 및 사례기업에 적용

□ 연구맥락

- 성숙도 측정 및 진단 모델은 ①현황 평가, ②기업 비전 수립 및 로드맵 제시, ③대내외 비교 및 벤치마킹에 필요함
- 유럽 공작기계산업의 4차 산업혁명 성숙도를 측정해야 할 이유로 고부가가치 전방산업에 솔루션 형태의 맞춤형 핵심실행(key-enabling) 기술의 제공을 꼽음
 - 대기업 또는 아시아의 경쟁자, 협상력이 큰 고객을 상대할 수 있는 전략임
 - 효과적인 디지털 서비스화 실현을 위해 성숙도 모델 개발 필요

□ 주요 연구결과

- 선행 연구의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성숙도 모델을 평가 후 IMPULS 모델 선정
 - * IMPULS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18개 분야 6개 종목을 제시함
 - ISO 15504 준수(ISO에서 지정한 프로세스 수행 능력 평가 프레임워크 표준)
 - 적합성 평가를 위한 6가지 기준
 - * 저자의 신뢰성, 적용 횟수, 중소기업 특성 고려 정도, 사용과 해석의 용이성, 서비스의 상품화를 고려한 정도, 성숙도 모형(Maturity Model, MM) 설계 관련 표준의 준수 여부
- 기존 모델을 확장하여 중소 공작기계기업용 IMPULS 모델을 개발함



<그림 18> IMPULS 모델의 변형

- 기본 6대 기준은 준용하되, 세부기준 추가(빨간 테두리) 및 변경(파란 테두리)
- 6대 기준 및 추가, 변경 사항
 - ① 전략과 조직: 1개 세부기준 추가(IT Strategy)
 - ② 스마트 팩토리: 1개 변경(디지털 모델링: 실행의 의미 확장; 단순 실행을 넘어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반의 피드백과 최적화 정보 제공까지 포함)
 - ③ 스마트 운영: 1개 세부기준 추가(공급망 통합), 1개 변경
 - * 자동화 공정: 로봇화, 자동화에 대한 성숙도의 경계를 명확히 함

④ 스마트 제품: 3개 세부기준 추가(디지털트윈, 흡수역량, 제품 추적)

- * 공작기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
- * 적용 및 학습 역량: 기계 사용 중 센서가 제공하는 지능과 피드백
- * 디지털트윈: 제품수명주기에 걸쳐 MT의 가상모델을 구축하고 관리
- * 제품 추적: 특히 복잡하게 조립되는 공작기계의 구조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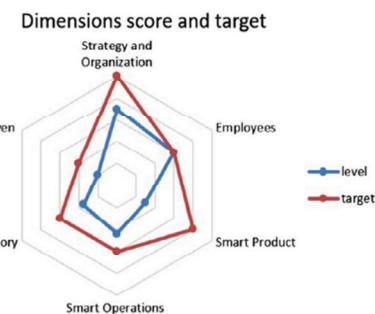
⑤ 데이터 기반 서비스: 1개 세부기준 추가(PSS Model, 제조업의 서비스화)

⑥ 종업원

- 각 기준의 성숙도는 리커트 척도(0~5점)로 평가
- 연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 공작기계 기업으로 제한하여 적용함
 - 유럽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공작기계산업을 대표하며, 4차 산업혁명의 성숙도 수준을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을 선택함
 - 기준별 차별화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레벨은 현 상태를, 목표(target)는 2년 내 목표를 의미함

General MM assessment results.

Organizational radar	Level	Weight (0-10)	Target
Strategy and Organization	3.5	9	5
Employees	3	7	3
Smart Product	1.5	9	4
Smart Operations	2.2	3	3
Smart Factory	1.75	5	3
Data-Driven	1	6	2
Global Score (unweighted)	2.16		
Maturity Level and overall target (weighted)	2.24		3.33



<그림 19> 변형된 IMPULS 모델의 유럽 공작기계기업 적용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업종·기업 맥락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성숙도 평가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적합성 평가 기준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함
- 현시점의 성숙도 평가뿐 아니라 미래 전략, 발전방안,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함께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
- 기준별 가중치를 활용함으로써 맞춤형으로 접근할 수 있었음

- 24 Kong, D., Yang, J., & Li, L. 2020. Early identification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numerical control machine tool: a deep learning approach. *Scientometrics*, 125(3), 1983~2009.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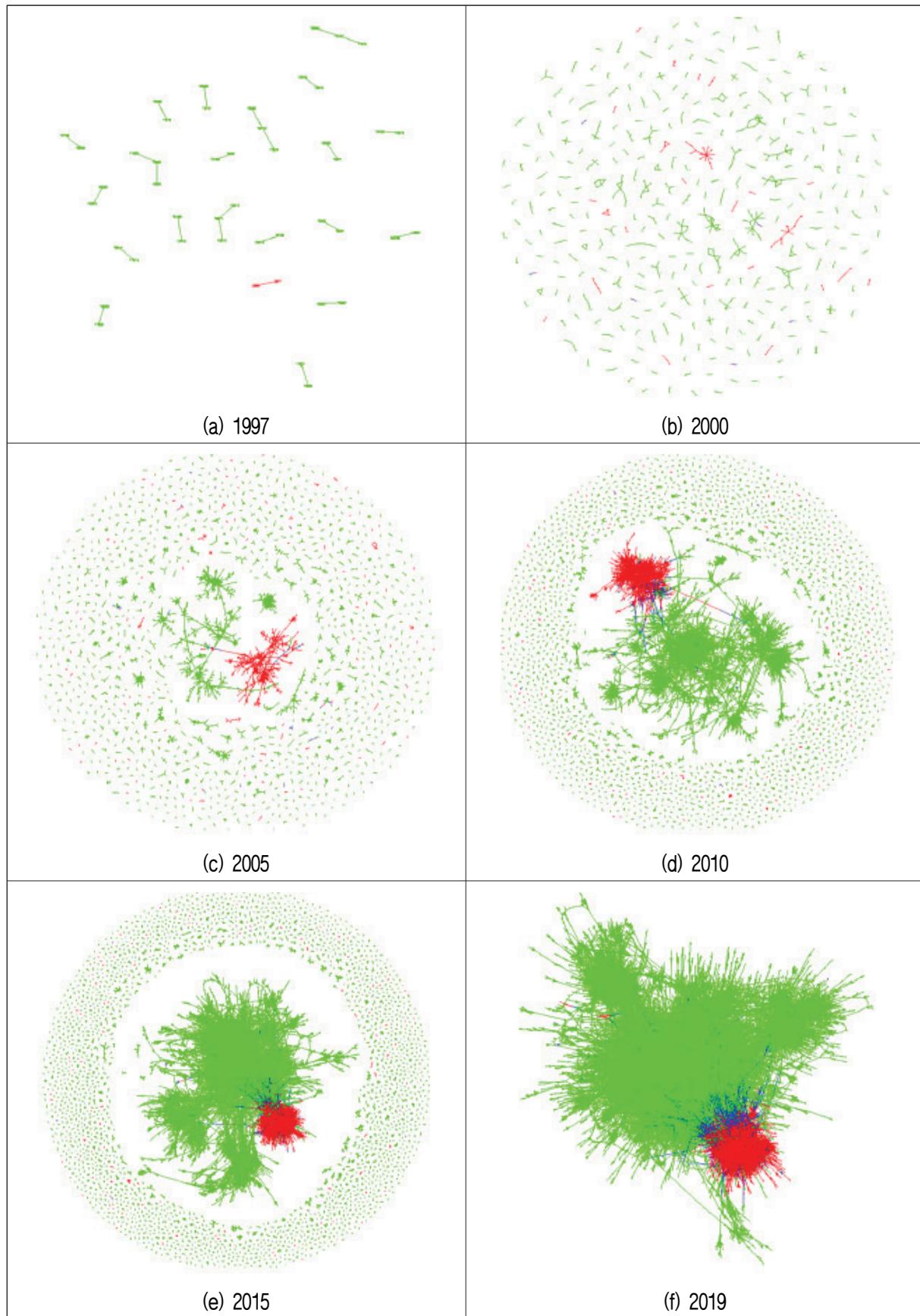
- 기술융합 관점에서 CNC 공작기계의 기술혁신을 이해하고 분석함
 - 기술융합 궤적 및 하위분야 기술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 출판물 인용 네트워크 분석과 문자열 정보 기반 그래프 인공신경망(GNN) 활용
- CNC 공작기계 기술의 IT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① 가공단계의 신호처리 ② 모션 제어 및 프로세스 기획에 지능형 알고리즘 적용이 활발함

□ 연구맥락 및 이론적 배경

- 기술융합을 선진국의 기술경쟁력 유지, 개도국이 추격하기 위한 기술적 기회의 창으로 해석(Kong et al., 2017)
- 융합은 과학적 지식, 기술, 시장, 산업 융합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과학적 지식수준에서 융합을 파악해야 기술 융합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음
- 기술융합에 대한 서지연구에서 머신러닝 및 네트워크 분석 기법의 활용이 증가
- CNC 공작기계, IT 및 전통기계기술 융합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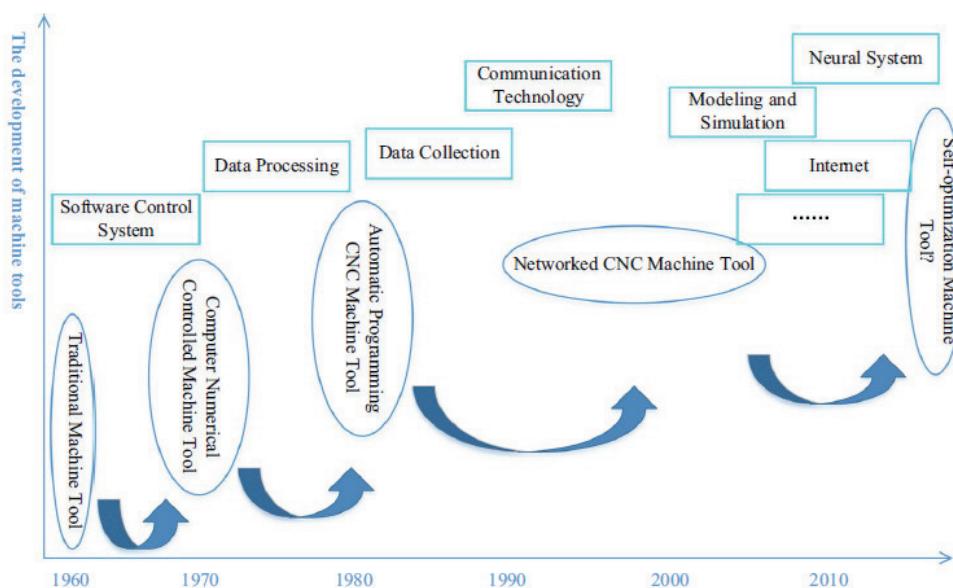
□ 주요 연구결과

- 공작기계와 IT간 기술 융합을 서로 다른 분야 간 인용의 관점에서 분석함
 - 붉은색 인용 네트워크: 공작기계 분야 출판물 간 (내부) 인용
 - 녹색 인용 네트워크: IT 출판물 간 (내부) 인용
 - 파란색 인용 네트워크: 서로 다른 분야간 다학제적 (외부) 인용
 - 2010년부터 외부 교차 인용 발생, 하위 네트워크 크기 증가



<그림 20> CNC 공작기계 학제 내 및 학제 간 피인용 네트워크 진화

- 과학기술대학교의 국가NC시스템공학연구센터 전문가와 워크숍을 통해 NC 공작기계의 발전 단계를 도출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타당성 검증
 - (1970년대) NC→CNC(Soft-wired), (1980년대) CNC에 자동 데이터 처리 기능 부착(제어), (1990년대) CNC의 자료수집 네트워크화(통신)
 - (2010년대) 인터넷, 시뮬레이션, 신경망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에러 처리 및 작업효율을 스스로 제고하는 자체 최적화(self-optimized) 공작기계가 등장함



<그림 21> NC 및 CNC 공작기계 시기별 기술 진화: IT 기술의 활용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네트워크 분석을 넘어 문자열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해야 특정 기술 분야의 융합 특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음

25

Valdaliso, J. M. 2020. Accounting for the resilience of the machine-tool industry in Spain (c. 1960~2015). *Business History*, 62(4), 637~662.

□ 개요

- 1960~2015년, 스페인 공작기계산업의 진화를 고찰하고 3번의 수요 위기에 대한 대응을 탄력성(elasticity)의 관점에서 분석함

- 3번의 수요 위기: ① 1970년대 말~1980년대 초(1978~1983년), ② 90년대 초(1990~1995년), ③ 2000년대 말~2010년대 초(2009~2014년)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 회복의 3대 요인은 유연성 및 제품 특화(전문화), 흡수·혁신 역량, 혁신과 숙련된 인력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리적 집약임
 - ① 유연성 및 제품 특화(전문화):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중소기업
 - ② 흡수·혁신 역량: 지속적인 R&D 투자로, 차별화 기반의 경쟁전략 수립
 - ③ 혁신과 숙련된 인력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리적 집약
- 스페인공작기계공업협회는 세 요인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줌(1946년 설립)

□ 연구맥락 및 이론적 배경

- 탄력성은 시스템이나 지역이 충격이나 위기를 예측, 저항, 적응, 대응하고 이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시스템 이론과 진화된 경제지리학의 관점
 - 충격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됨
- 따라서 탄력성을 높이는 요인을 이해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연구결과

- 총기업 수와 신생기업 수 관점에서 산업을 분석함
- 1982년과 2015년 세계 공작기계 생산량을 기준으로, 유럽 내 다른 국가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스페인은 유지함
 - 1982년에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없고, 2015년에는 5.9%로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5위(미국 6위, 대만 7위)
 - 2015년, 스페인이 EU 내 3위(독일-이탈리아-스페인), 유럽 내 4위(3위 스위스)
- 3번의 수요 위기 속에서도 스페인 공작기계산업의 총생산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상승함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 회복의 3대 요인 제시

- ① 유연성 및 제품 특화(전문화):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중소기업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 소기업 위주, 이탈리아와 비슷하며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보다는 그 규모가 매우 작음
 - 따라서 생산 유연성이 매우 높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만큼 경쟁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함
 - R&D&i(innovation)을 위한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하였으나, 1960년대부터 스페인공작기계공업협회의 지원을 통한 기업 간 협력으로 단점을 극복함
 - 이후 기업 간 합병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생산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함
 - * 금융자원, 국제화와 R&D&i를 위한 임계 규모 확보
 - 주요 그룹 형태의 기업 등장: 2008년 기준 Danobat, Maher Holding, Fagor Arrasate, Nicolas Correa가 총생산량의 40%를 차지
 - * 이후 특정 제품 분야 세계 1위 기록, 1990년대 특정 주요 선도업체들이 항공, 풍력, 철도 시장 등의 고급 수요 시장 진입 시도
 - 아래 표에 Others와 Special and transfer machines의 비중이 높은 것을 통해 매우 좁은 분야에 특화·전문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6> 스페인 공작기계 산업의 품목별 생산 현황

	1969	1984	1995	2014
<i>Metal cutting machine tools</i>				
Lathes	21.12	16.99	11.43	15.74
Milling machines	13.99	22.53	22.54	16.74
Grinding machines	6.91	6.22	5.56	7.43
Boring machines	4.29	4.29	1.24	1.17
Drilling machines	6.59	3.58	1.52	1.76
Special and transfer machines	4.51	8.56	9.54	10.72
Machining centers*			6.83	6.15
Others	13.74	15.79	11.98	6.09
Total	71.15	77.95	70.64	65.80
<i>Metal forming machine tools</i>				
Mechanical presses	13.96	5.00	8.57	17.48
Hydraulic presses		2.14	3.14	1.39
Others	14.90	14.90	17.65	15.33
Total	28.86	22.05	29.36	34.20

* In 1984 machining centers were included in others.

Source: author's elaboration from Olascoaga (1971) for 1969; Check (1985) for 1984, and AFM, for 1995 and 2014.

② 흡수·혁신 역량: 지속적인 R&D 투자로, 차별화 기반의 경쟁전략 수립

- 스페인공작기계공업협회의 박람회 개최와 유럽공작기계협회 가입을 통해 스페인 기업들이 최근 기술을 학습하고자 함
- 그 결과 NC 기술 등 급진적인 기술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적응함: 1978년에는 NC 공작기계 생산 비중이 1%에 불과하였으나, 1983년까지 빠르게 추격함
- 1980년대 동아시아 국가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R&D 수행기업 수, 투자 규모 및 인력 등을 시각화하여 제시함

③ 혁신과 숙련된 인력의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지리적 집약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은 바스크 지역에 지리적으로 집약됨
 - * 그 이유는 방위산업 특화지역으로 Escuela de Armeria(무기 분야 전문대학원) 등 방위산업 관련 학교가 1950년대부터 집약되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에 용이함
- 1970년대 이후 바르셀로나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가 쇠퇴했으며, 2010년 바스크 기업들이 산업 전체 매출의 84%와 수출의 86%를 차지함
- 바스크 지역 내에도 Guipuzcoa라는 도(State)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표 7> 스페인 공작기계산업 지역별 생산 현황

	1960		1969*		1985		1998		2010	
	Firms	Firms	Firms	Employment	Firms	Employment	Firms	Employment	Firms	Employment
Alava	8(3.1)	15(6.0)	645(5.2)	6(5.2)			5(5.4)	418(8.5)	5(6.2)	305(6.4)
Guipuzcoa	92(35.4)	87(34.8)	5,366(43.2)	61(53.0)			50(53.8)	3,074(62.6)	41(51.2)	3,014(63.3)
Biscay	44(16.9)	35(14.0)	1,707(13.7)	19(16.5)			11(11.8)	400(8.1)	10(12.5)	284(6.0)
Basque Country	144(55.4)	137(54.8)	7,718(62.1)	86(74.8)	5,643(77.8)	66(71.0)	3,892(79.2)	56(70.0)	3,603(78.2)	
Barcelona	65(25.0)	52(20.8)	2,604(20.9)	15(13.0)			11(11.8)	243(4.9)	9(11.2)	160(3.4)
La Rioja	14(5.4)	26(10.4)	622(5.0)	3(2.6)			2(2.2)	121(2.5)	2(2.5)	67(1.4)
Zaragoza	12(4.6)	15(6.0)		5(4.4)			5(5.4)	174(3.5)	4(5.0)	67(1.4)
Rest of Spain	25(9.6)	18(7.2)	1,488(12.0)	6(5.2)	1,609(22.2)	9(9.7)	483(9.8)	9(11.2)	964(20.2)	

* The source offers a distribution of firms by Spanish provinces. However, employment figures are only available for the three Basque provinces, Barcelona and Rioja.

Source: author's elaboration from AFM(1983), for 1960; Olascoaga(1971: vol. I, V-33, for 1969; Check(1985), for 1985; and AFM for 1998 and 2010. Figures for 1985, 1998 and 2010 refer to firms associated to AFM. In 1998 and 2010 AFM firms account for 78% and 86% of total firms, and for 93% and 98% of total employment, respectively.

- 바스크 지방정부는 스페인공작기계공업협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역량 향상, 산업 구조조정, 기업 간 인수합병, 수출, 연구소 설립 등을 지원함
 - * 스페인공작기계공업협회는 직업훈련센터를 강화하는 등 바스크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함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탄력성 관점에서 산업경쟁력을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낮추어 분석함
- 지자체,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함
 - 특히, 협회가 산업과 정부 사이의 교섭자 역할을 하며 기업 간 R&D, 인적 자본 형성, 해외 시장 접근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함

26

Martinelli, A. 2021. Collectivism, individualism and solidarity in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in the Global North: Workers' resistance in the Swiss machinery industry.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 개요

- 산업 가치사슬의 글로벌화, 즉 GVC로의 재편이 선진국 노동조합의 집단주의 약화, 개인주의 강화, 연대의식 약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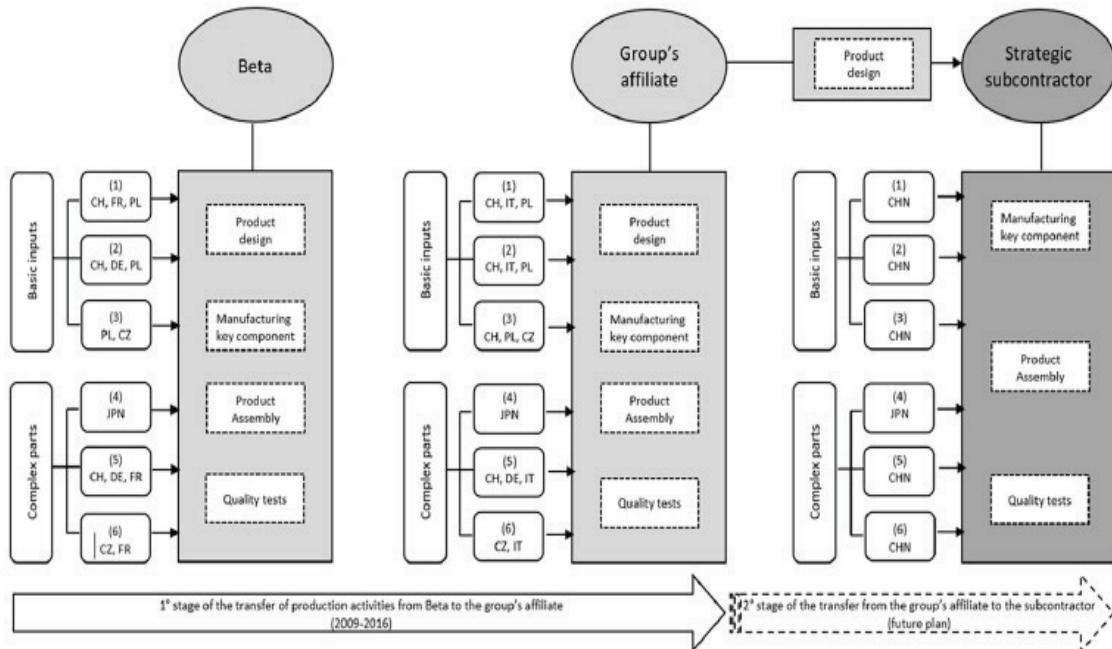
□ 연구맥락

- 스위스 공작기계산업은 수출지향적이며, GVC에 많이 편입된 산업 중 하나
 - 1차 자료 수집을 위해 노조원, 관리자, 개인 근로자 순으로 인터뷰 진행
 - 중소기업, 가족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 스위스는 문화·언어적으로 분화된 국가이며, 역사적으로 고용주(사측)이 노동자(노동자 측)에 비해 훨씬 우위에 있음
 - 과거부터 고용주 연합과 노조 간 사회적 대화 형성, 산업 수준의 단체 협약 (collective agreement)에 기반한 노동 평화조항 규정
 - 이에 따라 노동 운동은 잠잠하며, 파업은 긴 협상 이후 최후의 수단, 결국 대규모 재계 단체 중심의 협동조합 시스템이 오랜기간 활용됨
 - 노사협의회(Work Council)는 작업장 안전과 보건 등에 대해 개정 권고나 조언만 할 수 있는 단체(상사-부하 관계)임

□ 이론적 배경 및 주요 연구결과

- 기업의 GVC 활용 관련 초기 연구는 기업 경쟁력이 좋아지면 노동자 권리도 향상된다고 분석함: 산업고도화가 사회 전반의 고도화를 견인
-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 산업이 고도화됨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고도화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를 다수 실증함
- 이에 따라, 선진국의 GVC 활용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됨
 - (글로벌 노동력 차익거래) 선진국의 고임금 인력을 개도국의 유사한 능력을 갖춘 저임금 인력으로 대체하는 현상(국제 아웃소싱)
 - 선진국 기업이 노동력 차익거래를 활용하면 선진국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동자 결집 방해 전략(divide-and-rule), 비노조 선호, 저임금 노동자 선호, 착한 노동자 선호 등에 직면하게 되며, 결국 아래 3가지 불리한 여건에 직면
 - * 노조의 결속력 약화, 집단주의 약화, 노동자의 개인주의 강화, 노동자 간 연대의식 약화 (생산시설 중 더 나은 곳으로 이동하고자 단체활동에 빠지고, 열악한 근무조건도 수용)
- 1990년대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으로 인해 고용주들의 해고, 근무 강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촉진
 - 스위스 기계산업 내 GVC로의 편입 발생: 값싼 수입 제품·부품 증가, 일자리 감소, 역량있는 근로자 중심으로 노동구조 변화, 저부가 부품의 해외 아웃소싱
- 이에 따라 산업 전반에 3가지의 노사관계 변화가 발생
 - * 단체 협약에서 기업 수준의 협약으로 범 개정 및 개발하고 노사협의회는 부하(junior partner)에서 계약 파트너(contractual partner)로 격하
 - * 고용주들 단체 협약에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anti-labour) 조항 신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고용주들이 월급을 더 주지 않고 주간 근로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됨
 - * 탈노조, 비노조(de-unionization)
- (총괄) 스위스 공작기계 선도기업의 GVC 참여·활용에 따른 노동자 조합의 집단주의 약화, 개인주의 강화, 연대의식 약화 사례
 - 1990년대 베타를 소유한 다국적 기업이 경쟁사 인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인건비 절감, 유럽 내 공장 폐쇄, 해고(60명) 및 지주회사로의 이직 사례 확인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공장으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부품 공급사는 일본 등 동아시아에 집중됨
- 결국, 제품 설계(Product Design) 활동만 베타가 담당함
- 노동자의 투쟁: 생산·내부 개발 부서 보호장치 요구 → 사측이 정리해고 규모의 축소(60→30명)를 제안했으며 노동자 측은 수용하되 Good social plan을 제안



<그림 22> 스위스 공작기계기업의 GVC 활용에 따른 가치사슬 내 활동 주체 변화

○ (세부 1) 노동자 조합의 집단주의가 약화됨

- 노사협의회는 제한된 규정만 제공했으며, 결국 노동자 결집 방해 전략을 통해 노동자 측의 교섭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킴
- 노동자 측에서는 이득이 없는 승리: 30명으로 정리해고를 축소한 계획에 그침 → 결국 기업은 가치를 확보하였으나, 노측은 큰 수확이 없었음

○ (세부 2) 노동자 조합 내 개인주의가 강화됨

- 이후 노사협의회의 자문 기능이 종료되고, 사측이 노사협의회 대표를 감시함
- 고용 불안정 심화, 근로조건 악화, 이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압박은 결국 근로자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됨

- (세부 3) 연대의식이 약화되며 지주회사 내 다른 기업의 노동자와 긴장감 조성
 - 지주회사로 이직한 인원은 다른 계열사 직원의 교육훈련을 지시받았으나, 경쟁자를 훈련시키는 것은 자신의 해고를 촉발하는 일이라는 우려가 확산
 -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주저했고, 이는 분열로 인식되어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저해함

□ 연구결과에 대한 시사점

- GVC가 노동자에게 미친 3가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음
- GVC를 통해 산업 고도화와 사회 전반의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정부의 규제나 노동자 보호가 필요함
- 공작기계산업에 대해 산업계 소속 연구자가 저자로 참여한 유일한 연구로, 스페인 Mondragon group 소속 연구자가 참여함

4. 결론 및 시사점

- 1990~2021년에 게재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분석한 논문 26편을 정리
- 1990년대 9편, 2000년대 9편, 2010년대 4편, 2020년대 4편 등 시기별로 두루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함
 - 1990년대 연구는 미국, 일본, 독일(유럽)로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나, 2000년대 이후 한국, 대만, 중국, 스페인, 스위스 등 연구대상이 확대됨
- 미국, 일본, 독일, 유럽, 영국, 한국, 스페인, 대만, 스위스, 중국 등 주로 기계 분야(수출 기준) 10위권의 선도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1990년부터 2014년까지 가장 많은 8개의 연구에서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논문은 7개가 있으나, 2006년 이후 관련 연구가 단절됨
 - * 공작기계산업의 주도권이 미국과 독일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이 혁신연구에서도 관찰됨

- 한국 공작기계산업에 대한 연구는 2편이며, 2003년, 2007년에 각각 게재됨
 - * 범위를 기계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면 2000년대까지는 2편에 불과하지만, 2010년대 이후 5편의 논문이 게재되며 꾸준히 연구되고 있음
- 공작기계 기술·산업 분야 혁신연구는 Technovation, Research Policy 저널에 주로 게재되었으며, 국내 저자는 이공래 박사, 성태경 교수, 임채성 교수가 있음
 - 총 13개의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Technovation에 8편, Research Policy에 6편, Technology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에 2편, 그 외 모두 1편씩 게재됨
 - Technovation은 기술 동향과 혁신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JCR 상위 10%에 속하는 I.F.가 11.373에 이르는 국제학술지임
 - Research Policy는 경험·이론적으로 혁신과 기술이 경제, 사회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I.F.가 9.473에 이르는 국제학술지임
 - 이공래 박사는 일본 공작기계산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수요기업이 공작기계 혁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개도국의 관점에서 분석함
 - 성태경 교수는 기술시스템의 개념을 활용하여 한국 공작기계산업의 진화 과정을 분석하고, 기술수명주기가 긴 산업엔 중장기적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함
 - 임채성 교수는 기술 체계 및 시장 특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CNC 기술 추격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로 분석하고, 연구 프레임워크를 마련함
- 26편의 논문을 게재 시점과 연구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공작기계산업의 역사와 혁신 사례, 패러다임의 전환을 살펴볼 수 있음
 - 또한, 1990~2000년대 공작기계 CNC 사례연구와 같이 기술혁신 연구는 기술의 불연속적 변화, 급진적 혁신 특성이 나타나는 국가와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 통상의 기계분야는 점진적 혁신, 지식의 암묵지화 성향이 강하고, B2B 특성을 가져 기술혁신 관련 어젠다 빌들이 어렵기에 공작기계 분야로 한정하여 분석
 - 논문이 게재된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사이에 공작기계 산업·기술 리더십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음

① 1990년대에 발간된 연구

- 혁신 활동(기술축적을 위한 논문, 특허 등의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 산업의 주기적 변동성, 고임금의 요인으로 생산성 저하
 - 기능별 영역(Forming, Stamping, Welding, Pressing, Cutting) 기술 축적 기간이며 전 산업의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 CNC, 레이저, 광학기술 도입기
 - 가공 기술 발달에 따라 윤활유, 세정, 냉각 등 보완 기술 연계 성장
- 미국 공작기계산업은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제품 차별화(새로운 기능 부가)를 시도하였으나, 일본 및 독일 대비 경쟁우위 확보에는 실패
 - 미국과 일본 사이 공작기계산업 주도권은 1980년대부터 뒤바뀌었으며, 미국의 폐쇄형 루프에 비해, 일본은 개방형 루프의 형태로 개발하며 저가 공작기계 시장 창출 및 유연한 제조공정 자동화에 주력
 - 1960년대 중반, 모터기술의 성숙으로 개방형 루프 기술의 상업적 응용이 가능
 - 제어기술 혁신이 신규 시장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존 장비에 부착·활용하는 형태로 CNC 수요가 발생하면서 신시장 창출에 한계
- 미국 공작기계 중소기업 6곳의 공정혁신 실태조사 결과, 정부의 대형 고객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을 제시
 - 규제 부담 경감, 금융 인센티브, 우대금리 제공
 - 기존 정책들은 소규모 제조기업의 기술 역량 향상에 주목
 - 소규모 기업들의 새로운 공정혁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 확산의 ‘수요 견인’과 ‘기술 주도’ 측면 모두에 집중해야 함
- 독일 공작기계산업 50개 기업의 분석 결과, 특허를 활발히 하는 기업(국제출원, 유효 특허 비율, 피인용 특허)이 경제적 성과가 우수함
 - 클러스터 분석 기반 4가지 유형 확인: ①선택적 특허 출원, ②성공적이지 못한 특허 출원, ③국제적으로 매우 활발한 출원, ④유효 특허 중심 출원
 - * 6대 특허 지표 기준 50개 기업을 4개 클러스터로 구분
- 일본 공작기계산업을 대상으로 1979~1992년 사이 25개 일본공작기계 기업 분석 결과 전략 변수보다는 환경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 자동차 등 전방산업의 성장, 우수한 금융자원 조달 환경, 정부의 공작기계산업 환경 규제 등이 일본 공작기계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수요산업의 자본 투자 후 4~5년 후에 메카트로닉스 산업 혁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본 자동차 생산기업의 자본 투자 효과가 가장 큼
- 한국은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에서 진입 시도가 있었고, 삼성은 1990년대 말 신성장동력으로 CNC를 선택하기도 하였으나 실패에 그침
- 실제 추진 강도, 기존 기계기술 기반 지식 역량 정도 등의 관점에서 일본과의 비교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② 2000년대에 발간된 연구

- 미국 공작기계산업이 쇠퇴하며, 이미 수입제품에 잠식당한 내수시장보다는 R&D 집약을 통한 수출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분석함
 - 전시회와 해외 공공기관을 활용한 수출 고성장기업은 우수한 수출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이들이 R&D집약도, 고용창출, 매출 성장률도 우수함
 - 미국 공작기계산업이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려면 해외 시장 개척, 글로벌 가치 사슬 활용의 중요성 강조
- 독일 공작기계 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통해 매출액(성과)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
 - 출원과 매출성과 간 2~3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가 매출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침
- 영국에서 CNC 도입 시,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신기술 확산에 용이하나, 과도한 집적화는 지역 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음
 - 국가 수준의 기업간 학습효과는 아니지만, 지역내 기업간 학습효과를 확인함
- 한국의 CNC 선반 생산, 국내수요 증가를 기준으로 태동기, 유아기, 청소년기로 구분하여 기술시스템을 이해하고, 기술 추격 실패사례로 분석함
 - 기술수명주기가 긴 공작기계 분야를 기술시스템 관점에서 산업 진화 분석
 - * 기술수명주기가 긴 산업은 더 중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
 - LG산전의 사례 등을 통해 기술추격에 실패한 사례연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고, 기술시스템에 부분적 시장 체제라는 개념을 보완함

- 모듈라 제품 혁신에서의 인터페이스 전략을 대만 공작기계산업에 적용하여 분석했으며, 비정형화된 경로를 통한 기술 획득의 중요성을 확인함
 - 대만은 인터페이스 개방성이 외부로는 높고, 내부로는 비교적 낮음
 -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는 중저기술군의 사업에서 기술 라이센싱 등 정형화된 경로 외에 비정형적인 경로를 통한 성장사례를 확인함
- 일본 화낙의 CNC 아키텍처는 통합형 → 닫힌 모듈형 → 개방형으로 진화함
 - 맞춤형 제품 개발이 필요한 분야에서 원가 절감과 대량생산을 위해 모듈화가 촉진되었고, 이러한 모듈화를 위해서는 조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함

③ 2010년대에 발간된 연구

- 중국 로컬기업이 WTO 가입 이후 성장 제한 우려에도 글로벌기업과 경쟁하며 어떻게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는지 분석함
 - 점진적인 기술혁신 분야 또는 기술 변화속도가 느린 공작기계 분야였기에, 저가시장에서 출발한 로컬기업이 외부 기술·인력을 확보하며 기술 습득 가능
- 네일본의 화낙과 CNC 공작기계 사례를 통해 대기업의 전략적 전환과 기술 진화에 대해 분석함
 - 사내벤처로 출발한 대기업의 전략적 전환 사례인 화낙을 통해 전략적 혁신을 위한 신규 조직의 탐험역량과 기존 조직의 활용역량간 시너지의 중요성 강조
 - * 전략적 혁신을 위한 역량 프레임워크를 사분면 형태로 제시하고, 우수기업은 도메인 간 이동 역량과 운영 역량을 토대로 연속 루프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함
 - 모듈화 시대에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기획 아래 급진적 혁신(기술 혁명)보다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기술 진화를 설명함
- 스페인 공작기계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상호이익을 위한 경쟁기업 간 협력 사례를 통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며, 혁신과 국제화를 이뤘는지 분석함
 - 명확한 협력동기와 협력 촉진요인은 확보하고, 저해요인은 제거함으로써 협력 의사가 있는 기업의 경쟁사 간 협력을 지원하여 산업을 부양할 것을 제언함

④ 2020년대에 발간된 연구

- 기존 IMPULS 모델을 확장하여 유럽 공작기계산업 내 중소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도입성숙도 측정모델을 개발함
 - 업종과 기업의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4차 산업혁명 도입성숙도 측정모델이 필요하며, 현시점의 수준평가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개발까지 연계해야 함
 - 스페인 공작기계산업의 진화과정 속 3번의 수요 위기에 대한 대응을 탄력성의 관점에서 분석함
 - 유연성 및 제품 특화(전문화), 흡수·혁신 역량, 혁신과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리적 집약을 공작기계산업이 회복할 수 있었던 3대 요인으로 제시함
 - 수출지향적인 스위스 공작기계산업이 GVC에 편입되며 노동조합의 집단주의 및 연대의식 약화, 개인주의 강화가 야기된 원인을 분석함
 - GVC가 노동자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고도화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함
-
- 공작기계 기술·산업 분야 혁신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학습함으로써 정책역량 제고 및 정책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논문·특허 출판이 매출이나 생산량 등 성과에 미치는 영향부터 무역경쟁력 비교 등 정량분석 연구
 - 기술시스템, 가치사슬, 경쟁우위, 기술융합, 기술진화, 지배적 디자인, 아키텍처, R&D 집약도, 형식지·암묵지 등 경영·혁신 개념 및 이론을 활용한 연구
 - CNC 기술을 대표하는 화낙(Fanuc)에 대한 사례연구
-
- 공작기계산업에 대한 혁신연구를 고찰함으로써, 기계산업 전반에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제언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④ Ernst, 1995; ⑪ Ernst, 2001) 정량적 평가의 한계는 분명하지만,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가 매출 등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 (③ Davis, 1993)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특허 패키지의 중요성 강조
- (⑫ Baptista, 2001) 특화도시 등을 추진할 때 기존의 인프라와의 자리적인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기술을 확산하고 혁신성과를 창출해야 함
- (⑯ Kalafsky & MacPherson, 2006) 인재육성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가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주체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야 함
- (⑰ Chen, 2009) 출연(연)과의 협력, 해외 박람회 참여, 기술 라이센싱 등을 통해 비정형적 학습을 강화하는 것이 중소기업 중심인 우리 기계산업에 중요함
 - (⑩ Kalafsky & Macpherson, 2001) 기계산업이 가지는 특징으로 성장을 위한 비공식적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함
- (⑯ Brandt & Thun, 2010) 우리 기업도 기술 변화가 완만한 산업에서는 로컬과 글로벌 가치사슬에 모두 참여하며 기술 역량의 축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
- (㉐ Kodama & Shibata, 2014) 대기업이 전략적 전환을 하려면, 환경변화와 내부 역량을 분석한 후, 어떻게 탐험과 활용 프로세스를 병행할지 설계해야 함
- (㉑ Basterretxea et al., 2019) 기업 간 협력이 부족한 우리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위하여 경쟁사 간 협력하려면 명확한 협력 동기의 발굴이 선행되어야 함
- (㉒ Rafael et al., 2020) 기계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므로, 업종·규모 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혁명 도입성숙도, ESG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어야 함
- (㉓ Martinelli, 2021) 수출지향적인 우리 기계산업이 GVC가 개편되며 받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자 보호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 (⑨ Vonortas & Xue, 1997)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역량 향상뿐 아니라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 강조

약어 정리

CNC	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 수치제어기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 특허 분류 체계
GNP	Gross National Product, 국민총생산. 1년 동안 해당 국적의 국민들이 국내외에서 새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값(생산 주체의 국적 기준)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허핀달-히쉬만 지수. 어떤 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며, 값이 클수록 산업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MT	Machine Tool, 공작기계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단품종소량생산 시스템
MPU	Micro Processor Unit, 마이크로프로세서 장치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에 의한 통합 생산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현시 비교우위 지수. 세계 전체 수출시장과 특정국 수출에서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 사이의 비율로 비교우위 판단 시 사용
RTA	Revealed Technological Advantage, 현시 기술우위 지수. 특정 주체가 다른 주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떤 기술 분야에 특화되었는지 분석하며, 특허활동지수(AI, Activity Index)로 알려져 있음
RPA	Revealed Patent Advantage, 현시 특허우위 지수. 특허의 양적인 비교지수로써 0을 기준으로 양의 값일 때는 경쟁력이 우위에 있으며 음의 값일 때는 비교 열위에 있음을 의미함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 위탁 생산 방식
ODM	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개발생산 방식
MM	Maturity Model, 성숙도 모형
PSS	Product Service System, 제품 서비스 통합 시스템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자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개념

참고문헌

- Chakrabarti, A. K. (1990).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n analysis of the chemical, textiles and machine tool industries in the US. *Research policy*, 19(3), 257-269.
- Vitali, G. (1990).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trade of machine tools during the eighties: a shift-share analysis. *Technovation*, 10(8), 507-519.
- Davies, H. (1993). The information content of technology transfers: a transactions cost analysis of the machine tool industry. *Technovation*, 13(2), 93-100.
- Ernst, H. (1995). Patenting strategies in the German mechanical engineering industry and their relationship to company performance. *Technovation*, 15(4), 225-240.
- Kotha, S., & Nair, A. (1995). Strategy and environment as determinants of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Japanese machine tool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6(7), 497-518.
- Lee, K. R. (1996). The role of user firms in the innovation of machine tools: The Japanese case. *Research Policy*, 25(4), 491-507.
- Mazzoleni, R. (1997). Learning and path-dependence in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comparative evidence on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s. *Research Policy*, 26(4-5), 405-428.
- Ehrnberg, E., & Jacobsson, S. (1997). Indicators of discontinuous technological change: an exploratory study of two discontinuities in the machine tool industry. *R&D Management*, 27(2), 107-126.
- Vonortas, N. S., & Xue, L. (1997). Process innovation in small firms: case studies on CNC machine tools. *Technovation*, 17(8), 427-438.
- Kalafsky, R. V., & MacPherson, A. D. (2001). Recent trends in the export performance of US machine tool companies. *Technovation*, 21(11), 709-717.
- Ernst, H. (2001). Patent applications and subsequent changes of performance: evidence from time-series cross-section analyses on the firm level. *Research Policy*, 30(1), 143-157.
- Baptista, R. (2001). Geographical clusters and innovation diffus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66(1), 31-46.
- Sung, T. K., & Carlsson, B. (2003). The evolution of a technological system: the case of CNC machine tools in Korea. *Journal of Evolutionary Economics*, 13(4),

435-460.

- Chen, K. M., & Liu, R. J. (2005). Interface strategies in modular product innovation. *Technovation*, 25(7), 771-782.
- Shibata, T., Yano, M., & Kodama, F. (2005). Empirical analysis of evolution of product architecture: Fanuc numerical controllers from 1962 to 1997. *Research Policy*, 34(1), 13-31.
- Kalafsky, R. V., & MacPherson, A. D. (2006). The post-1990 rebirth of the US machine tool industry: a temporary recovery?. *Technovation*, 26(5-6), 665-671.
- Lim, C. (2007). Catch?up failure in core IT components: The case of numerical controllers.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15(2), 101-124.
- Chen, L. C. (2009). Learning through informal local and global linkages: The case of Taiwan's machine tool industry. *Research policy*, 38(3), 527-535.
- Brandt, L., & Thun, E. (2010). The fight for the middle: upgrading, competition,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China. *World Development*, 38(11), 1555-1574.
- Kodama, M., & Shibata, T. (2014). Strategy transformation through strategic innovation capability?a case study of F anuc. *R&D Management*, 44(1), 75-103.
- Kodama, F. (2014). MOT in transition: From technology fusion to technology-service convergence. *Technovation*, 34(9), 505-512
- Basterretxea, I., Charterina, J., & Landeta, J. (2019). Coopetition and innovation. Lessons from worker cooperatives in the Spanish machine tool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 Industrial Marketing*.
- Rafael, L. D., Jaione, G. E., Cristina, L., & Ibon, S. L. (2020). An Industry 4.0 maturity model for machine tool compan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59, 120203.
- Kong, D., Yang, J., & Li, L. (2020). Early identification of technological convergence in numerical control machine tool: a deep learning approach. *Scientometrics*, 125(3), 1983-2009.
- Valdaliso, J. M. (2020). Accounting for the resilience of the machine-tool industry in Spain (c. 1960?2015). *Business History*, 62(4), 637-662.
- Martinelli, A. (2022). Collectivism, individualism and solidarity in global value chain restructuring in the Global North: Workers' resistance in the Swiss machinery industry. *Economic and industrial democracy*, 43(3), 1391-1419.

기계기술정책 발간 목록

제 목	작성 연월
73. 기계산업 2013년 성과 및 2014년 전망	2013.12.
74. 2014년 기계산업이 주목해야 할 트렌드 분석과 시사점	2014.02.
75. 우리나라 기계산업 품목별 수출 시장 점유율 분석과 시사점	2014.04.
76. 우리나라의 TPP 참여에 대비한 기계산업 품목별 관세 전략 수립	2014.09.
77. 2014 미래기계기술포럼코리아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4.11.
78. 기계산업 2014년 성과 및 2015년 전망	2014.12.
79. 최근 기계산업 대일무역역조 개선의 원인과 시사점	2015.06.
80. 기계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2015.10.
81.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경쟁력 강화 방안	2015.12.
82. 기계산업 2015년 성과와 2016년 전망	2016.01.
83. 건설기계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경쟁력 강화 방안	2016.05.
84. 4차 산업혁명과 기계산업의 미래	2016.11.
85. 기계산업 2016년 성과와 2017년 전망	2017.02.
86.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농촌 바이오가스플랜트 사업의 기회	2017.07.
87. 해외 선도 기관과의 기계기술 연구 분야 비교 분석	2017.11.
88. 산업용 로봇 시장 동향과 대응	2017.12.
89. 기계산업 2017년 성과와 2018년 전망	2018.01.
90. 새로운 시대 소통 역량: 4차 산업혁명 연계기술	2018.07.
91. 국방분야 생존성 향상 기술 동향	2018.08.
92.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의 부상과 시사점	2018.09.
93. 기계산업 2018년 성과와 2019년 전망	2019.02.
94. 중국제조 2025 주요 제조장비 개발 계획과 대응 전략	2019.06.
95. 한·중·일 공작기계 및 기계요소 수출경쟁력 분석 및 제언	2019.07.
96.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의 성장과 시사점	2019.12.
97. 기계산업 2019년 성과와 2020년 전망	2020.01.
98. 글로벌 농기계산업 동향 분석	2020.02.
99. 포스트 코로나(Post COVID-19), 유망 기계기술 및 제언	2020.06.
100. 우리나라 제조장비기업의 성장·혁신·수익 패턴 분석과 시사점	2020.08.
100(특집호). 기계산업 데이터 활용 및 분석 방법 제언	2020.08.
101.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기계기술 제언	2021.01.
102. 기계산업 2020년 성과와 2021년 전망	2021.01.
103. 수소 산업의 글로벌 기술동향 및 정책 전망	2021.05.
104. 인체 증강 기계의 동향과 전망	2021.08.
105. 미국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과 기계산업 시사점	2021.12.
106. 기계산업 2021년 성과와 2022년 전망	2022.02.
107. 일본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특징과 시사점	2022.04.
108.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암모니아 기술의 부상 및 시사점	2022.07.
109.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2022.11.
110. 공작기계 및 산업 혁신 연구의 체계적 고찰과 시사점	2022.12.

기계기술정책

Technology Policy for Mechanical Engineering

:: No. 110 공작기계 및 산업 혁신 연구의 체계적 고찰과 시사점

- | 발행인 | 박상진
- | 발행처 | 한국기계연구원
- | 발행일 | 2022.12.
- | 기획·편집 | 기계기술정책센터
-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 | 전화 | (042) 868-7682